

天台・法華 章疏의 刊行과 流通*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mmentary of
Lotus Sutra and Cheontae

남 권 희 (Nam, Kwon-Heui)**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國外 所在 章疏 調査資料 |
| 2. 高麗時代 天台宗의 成立과 發展 | 6. 맺음말 |
| 3. 天台四敎儀와 天台四敎儀集解 | <참고문헌> |
| 4. 法華經 關聯 章疏類와 資料 | |

<초 록>

이 연구는 천태종 장소 문헌 중에서 『천태사교의』와 『묘법연화경』과 관련된 주석서를 실물조사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중국의 천태종이 이론 중심의 학파에서 실천문이 강조되는 종파로서 성립되었고 고려에서는 의천에 의하여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신편제종교장총록』이라는 장소의 목록 편찬과 이의 간행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장경에 이은 불교문화와 사상의 총합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천태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의경전으로서 『법화경』의 장소 중 현존하는 판본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소장된 것을 대상으로 서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하여 보았다.

要語: 천태사교의, 법화경, 의천, 천태종, 천태사교의집해, 천태삼대부보주

* 본 논문은 「2014년 제3차년도 高麗 諸宗教藏 調査 학술보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5년 5월 23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is research closely examined commentaries relevant to 『*Cheontaesagyoewi*』 and 『*Lotus Sutra*』. Cheontaejong in China transformed to practice-based to theory-based denomination and Goryeo Cheontaejong was established with supports of UiCheon. As the publication of 『*Shinpyeonjaejonggyojangchongrok*』 progressed, the unification of Buddhism was witnessed. This study mainly approached to currently existent editions of 『*Beophwagyeong*』 commentaries, one of the basic documents of Cheontaejong, outside of Korea, bibliographically.

First, Cheontaejong led by UiCheon produced and distributed myriad documents abroad to China or Japan. However, after stagnation of Buddhism, they were mainly explored in early 13 century, which was a period of Goryeo military regime, by Yonse.

Second, as one of the fundamental books of Cheontae, 『*Cheontaesagyoewi*』 written by ChaeGwan, who expanded Goryeo Cheontae to China, has reprinted edition (1089) and Gibokdogampan (1315). 『*Cheontaesagyoewiijiphae*』, the commentary of 『*Cheontaesagyoewi*』, has Gangyeongpan (1464) published in the year of King Saejo, Eulhaejapan and Eulhaejapan's edition and the contents of each edition were mostly equivalent to their original contents with only few differences.

Third, 『*Cheontaesamdaeboojoo*』 is the commentary related to 『*Beophwagyeong*』 which was published in Boonsadaejangdogam in 1245 as a woodblock edition. It is very unique as it was printed in same period as the Tripitaka. The overall content is about composition of Jongui to Cheontaesamdaeboo, which consists of 『*Beopwhamoongoo*』, 『*Beopwhahyeonui*』, 『*Mahajigwan*』 and only a book of Vol. 1-5 is currently existent out of total 14 volumes.

Fourth, as places of commentaries outside of Korea, there are 『*Beopwhamoongoogi*』 and 『*Beopwhasammaechamui*』 as woodblock books of China, and 『*Myobeopyeongwhagyeonghyeonchan*』 (University of Kyoto), 『*Beopwhagyeonghyeonchan*』 (College of Ryukoku) 『*Gwajoomyobeopyeongwhagyeong*』 (College of Ryukoku), 『*Beopwhamoongoobojeonggi*』 (collection of Kanazawa), 『*Beopwhagyeongmoongoogwa*』 (collection of Kanazawa), 『*Beopwhauiso*』 (College of Otani) and 『*Gwajoomyobeopyeongwhagyeong*』 (College of Buddhism) as books of Japan.

Following commentaries of Cheontaesagyo and 『*Beophwagyeong*』 will perform a significant role on understanding formats and structur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ripitaka of UiCheon.

Key words: *Cheontaesagyoewi*, *Beophwagyeong*, UiCheon, Cheontaejong, *Cheontaesagyoewiijiphae*, *Cheontaesamdaeboojoo*

1. 머리말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中唐이래 宋代에 이르러 教禪一致의 사상이 일어났으며 천태종도 이러한 영향으로 지레가 창시한 山家派와 孤山智圓(976~1022)이 중심이 된 山外派로 나누어졌다. 사상적으로 볼 때 산가파는 四明知禮(960~1028)가 천태사상과 정토신앙의 결합을 이론적으로 성립시켰고 산외파는 화엄교학 및 禪門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었다. 고려의 의천은 산가파를 전범하여 고려의 천태종을 개창하였으며 산가파의 南屏과 廣智尙賢 계통의 승려들과 긴밀하게 교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천은 중국의 천태종이 선종과 교류한 사상경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천계 천태종은 고려후기로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으며 무신란 이후 불교계의 동향은 무인정권과의 항전에 앞장선 교종세력이 최씨 집권시기를 경계로 하여 점차 쇠퇴하고 선종 세력이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천태종의 了世(1163~1245)가 출현하여 1216년 봄에 白蓮結社를 조직하고 교세를 확장시켰다. 이어 1232년에 보현도량을 개설하여 일종의 實踐門으로써 『묘법연화경』의 28品 普賢菩薩勸發品에 의하여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후 『법화경』을 염송하고, 사경한다거나 판각 간행하였으며 法華教觀에 바탕하여 法華懺를 수행하는 당시 천태사상은 13세기 전후의 혼란상에 처해있던 불교계의 자각을 촉구하고 농민과 천민 등 피지배층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지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천태종에서 중요시된 『법화경』은 受持, 讀誦, 正憶念, 修習, 書寫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상으로 연구와 풀이한 주석서 등도 저술, 간행되어 유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화경』 관련의 주석서 중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수록분과 후대에 重修, 重刊된 판본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편찬되거나 전래되어 비록 총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분야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문헌들은 기본적인 서지를 제시하고 그 불교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관이 중국에서 저술하였던 『천태사교의』와 集解 등 관련된 저술의 간행사

실을 살펴보고 판본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2. 高麗時代 天台宗의 成立과 發展

중국의 천태종은 선종이 대두하기 전인 6세기 후반부터 천태산을 중심으로 법화사상을 강조했던 湛然을 이은 慧思의 계승자인 智顗(538~597)로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한국으로의 수용은 고구려의 波若, 백제의 慧現, 신라의 緣光 등이 지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하나의 종파로 확립된 고려 중기까지를 학파시기로, 또 발전과 중흥을 거쳐 불교계를 정리했던 조선 세종시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되기도 하였다.¹⁾

<표 1> 불교계의 學派·宗派期

學派期	제1기(600-800년)	- 고구려: 波若, 慧觀 - 백제: 玄光, 慧顯 - 신라: 元曉, 憬興, 太賢
	제2기(800-950년)	- 能兢
	제3기(950-1100년)	- 智宗, 慧炬, 釋超, 英俊
宗派期	제1기(1100-1200년)	- 義天, 教雄, 翼宗, 德素
	제2기(1200-1350년)	- 了世, 天因, 天頭, 丁午
	제3기(1350-1450년)	- 神照, 行乎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학파기의 제1기는 『법화경』을 교학의 중요 경전으로 삼아 참구와 신앙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제2기는 천태학을 이론적 측면보다 異蹟과 실천을 강조한 시기였으며 제3기는 종파로서 형성되지는 못하였으나 유가종과 화엄종에서의 『법화경』 중시경향과 더불어 吳越, 宋의 禪僧 들과의 교류가

1)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서울: 一潮閣, 1986), 260-262.

확대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고려의 천태학은 신라 이래 존속하였으나 延壽 등 중국의 法眼宗僧 으로부터 유학하고 전래받아 귀국한 선승들과 德韶 등에 의하여 계승발전 되었고 의천에 의하여 천태종으로 세워진 이후 불교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수용되었으며, 전래된 관련 문헌의 간행과 학승과 고승들이 연구에 의한 저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 중 무신집권기의 원묘국사 了世는 보조국사 지눌의 영향으로 白蓮寺結社를 주도한 인물로서 천태삼부작의 요약서를 펴내었 으며 매일 『법화경』을 한번 독송하고, 准提眞言을 천 번 외우고, 아미타불을 만 번 부르는 수행을 하면서 『법화경』을 근거로 하는 法華三昧의 수행과 염불을 강조하였다. 이어 天因은 법화사상과 정토신앙을 결합시킨 형태로 요세의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이후 백련사의 4세인 天頤(1206~?)의 사상은 당시 禪을 비판하였고 또 그의 정토사상의 배경에는 강한 국가의식과 함께 유심정토설과 타력정토설 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法華經』를 대중의 경전으로 정착시키려 노력한 배경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천책은 淸河 崔相國의 지원 아래 『법화경』을 金字로 쓰면서 법화사상의 진수를 깨닫고 이후 1236년에 白蓮結社文을 지었으며 1241년에는 崔滋의 초청으로 尙州 四佛山에서 大乘寺를 중수하고 1244년 동백련사의 법주가 되었다.

그는 1262년에 『법화수품찬』, 1268년 金承制와 『法華傳弘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로 알려진 것으로는 『湖山錄』,²⁾ 『實簿錄』,³⁾ 『海東傳弘錄』,⁴⁾ 『禪門寶藏錄』⁵⁾ 등이 있다.

천책의 사상은 了世의 보현도량에서 이룩된 법화참법을 계승하여 『법화경』의 묘를 터득하여 민중신앙결사를 이끌었다.

2) 전 4권 중 제3, 4권이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음.

3) 내용과 분량을 알 수 없고 전하지 않음.

4) 전체 4권이며 了圓의 『법화영험전』에 11편이 수록되어 있음.

5)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밖에 중요한 인물로 충숙왕대의 고승인 浮庵 雲默의 자는 無奇이며, 而安堂 문하에서 천태교의를 배웠고 후에 굴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새로 입문한 사미승들의 계몽을 위해 『천태사교의』와 불전, 조사의 글을 뽑아 『석가여래행적송』 2권을 지었다.

한편 원간섭기 이후에는 천태종은 정치권력과 밀착되었다고 평가되는 妙蓮寺와 白蓮社 계열로 나누어지고 그 중 묘련사 계열은 元과의 외교와 혼인을 통하여 성장한 趙仁規(1227~1308)의 가문과 관계가 깊었다. 묘련사의 인물은 圓慧, 洪恕, 混其, 義璇, 了圓으로 이어지고 이 중 의선은 조인규의 넷째 아들이며 요원은 그의 증손자였다.

의선은 元의 무종, 인종과 고려의 충선왕, 충숙왕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역할을 하였고 요원은 의선의 뒤를 이어 묘련사를 맡으며 『弘贊法華傳』과 『法華經顯應錄』 등을 바탕으로 『法華靈驗傳』을 찬술하였다.

또 백련사 계열에서는 수행전통이 요세이래 『법화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참법이 유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인 雲默 無寄는 당시의 귀족불교를 비판하면서 말법시대의 佛者들의 자각과 사명감을 강조한 『釋迦如來行蹟頌』과 『警策』 등을 저술하였다. 한편 묘련사 계열에서는 天台疏에 의한 『법화경』 연구에 관심을 돌리면서 실천관문에서 벗어나 대중불교의 종교적 참회행보다는 교학적 관심에 치우친 귀족불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묘련사와 백련사 두 계열에서는 법화삼매 수행을 중심으로 법화신행이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백련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법화신앙이 몽고와의 전쟁과 정치적 변혁을 거치면서 묘련사 중심의 법화신행이 전개되었다. 특히 고려후기의 백련사에서는 결사이후 天台止觀, 法華三昧懺, 淨土求生の 3문 수행이 행하여졌다.⁶⁾

6) 고익진, “圓妙了世의 白蓮結社와 그 思想的 動機,” 『佛敎學報』 제15집(1978), 110.

이 때 중심이 된 경전은 崔滋의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序』⁷⁾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태대사가 찬술한 『法華三昧懺義』로 추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고려 후기에 편찬된 妙慧 저술의 『法華三昧懺助宣講義』와 山巨이 찬한 『妙法蓮華經三昧懺法』 3권이 근래에 慶州 祇林寺의 불복장에서 발견되어 알려졌다.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은 충숙왕 13년(1326)에 讀誦과 作觀에 중점을 둔 수행집으로 찬술된 것이며 이 수행집의 강의용으로 올바른 수행의 지침을 제시한 『法華三昧懺助宣講義』도 우왕 3년(1377) 묘해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백련결사의 요세는 당시 대중들이 생사죄업을 타파하기 위하여는 맹렬히 참회행을 닦을 때 『법화경』의 四寶를 모시고 六根懺悔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범회삼매참과 정토구생에 의한 부처님 호념의 필요성을 『法華三昧懺義』의 권수에 설해진 일체번뇌를 정화하거나, 비구의 법을 잃었다가 다시 청정함을 얻으려고 범회삼매를 닦음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妙法蓮華經三昧懺法』에서는 육근참회를 한 가지 참회법으로 하고 독송에 의한 수행을 강화하면서 實相正觀을 따로 두지 않으며 作觀으로 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고 관행을 닦도록 인도함으로써 백련사 계열 『法華三昧懺義』의 수행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수행관의 차이는 백련사의 사상이 단계별로 차이를 보여 제1단계는 만덕산 백련사를 중심으로 요세의 결사정신이 유지되던 시기이며, 제2단계는 개성의 묘련사에 진출하여 천태종의 본산인 국청사를 장악하고 귀족불교를 구가하던 시기였으며, 제3단계는 제2단계의 상황에 대하여 백련사의 초기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그 중 원 간섭기에 접어들면서 원을 배경으로 성장한 친원 세력과 1284년 묘련사의 창건으로 정치적 성향을 띤 불교의식이 행해졌다.

백련사 계열의 『法華三昧懺義』에 비하여 묘련사 계열의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은 그 서문에서 원 황제 일족과 고려 국왕 일족 신하, 백성들의 안녕을 비는 기원 즉 귀족주의적 신행경향이 나타나므로 서민적 신행경향인 백련사 시기와 서로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7) 『朝鮮金石總攬』 卷上, 592,1.

3. 天台四教儀와 天台四教儀集解

3.1 天台四教儀

이 책의 저자인 諦觀(900~975)의 자세한 생애는 전해지지 않으나 고려의 천태학을 중국에 전파한 고승으로 『天台四教儀』를 저술하여 중국과 일본에 떨쳤으며 이후 관련된 저술이 많이 저작되고 유포되었다. 『천태사교의』는 쉽게 말해 천태학의 입문서이자 불교개설서라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五時八敎의 개요를 간추려 해설하고 이어서 觀心の 대강으로서 二十五方便과 十乘觀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결론으로 되어 있다. 5시와 8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5시는 부처님이 成道하신 후 49년 동안의 설법 내용을 5시로 분류한 것으로 ① 華嚴時: 37일 ② 阿含時: 12년 ③ 方等時: 8년 ④ 般若時: 21년 ⑤ 法華涅槃時: 8년을 말하고, 8교는 부처님의 교화 형식에 의한 구분인 化儀四敎와 교리 내용에 따른 구분인 化法四敎를 합해 8교라 하는데, 화의사교는 頓敎・漸敎・秘密敎・不定敎 등 넷이고, 화법사교는 藏敎・通敎・別敎・圓敎 등 넷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체관은 광종 12년(961)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義寂(919~987)의 문하에서 천태교학을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그의 저술 중 상하 2권의 『天台四教儀』는 천태사상의 개설서로서 지금은 상권만 전하고 있으며 관련된 주석서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73종이 알려져 있고 그것에 대한 末疏도 130종⁸⁾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책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여 元粹가 述한 修釋 2권, 蒙潤이 集한 集註 3권, 必昇이 撰한 法相圖 5권, 從義가 述한 集解 3권, 至寶가 集한 圖解 5권 등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고려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四教儀』 1권”이라는 기록과 함께 仁岳이 지은 科 1권, 從義의 科 1권, 集解 3권, 從陳의 講義 3권, 무명인의 問答 1권, 『地位集解』 1권이 수록된 것을 보면, 의천 당시는 많이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이병욱, “고려시대 개경에서 활동한 천태사상가,” 『국제고려학회논문지』 제8호(2006), 69.

이 가운데 현존본으로 볼 때 종의의 집해 3권은 조선시대의 世祖年間に 목판본이 간행되었고, 금속활자 을해자로 찍은 판본도 현재 전하고 있다.

조선 중기 彦機의 저술인 『鞭羊集』의 『禪教源流』에서 교에 입문하는 차례가 『천태사교』에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도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저본으로는 기록과 사진으로 알려진 해인사본⁹⁾이 있지만 실물의 소장처는 알 수 없고 다만 보물 제1052호의 1315년(충숙왕 2) 祈福都監에서 간행된 『천태사교의』 불분권 1책만이 고려시대의 목판본으로 1책이 전하고 있다.

3.1.1 天台四教儀 1089년 海印寺 重刻版

『천태사교의』가 간행되던 당시의 불교계의 배경 중 章疏에 대한 연구는 宣宗 즉위년(1083)부터 肅宗 2年(1097)까지 사이에 金堤 金山寺 廣敎院에서 韶顯大師가 章疏 32부 353권을 교감하여 開板한 사실을 ‘慧德王師眞應塔碑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무렵은 義天이 諸宗義章과 疏鈔를 수집하여 간행하려고 활동한 시기로 그의 弘願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는 법상종의 開祖인 당나라 慈恩大師 窺基가 지은 『法華玄贊』, 『唯識論述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同王 5年(1088)에 『阿彌陀經通贊疏』를 간행한 사실을 그 刊本을 통하여 알 수 있다.

宣宗 6年(1089) 2월에는 海印寺에서 高麗의 僧 諦觀이 지은 『天台四教儀』가 重刻되었다. 권말의 간기 사항에 ‘…大安五年歲次己巳二月日 海印寺重刻’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은 논술된 사상이 독특하여 중국, 일본 등지에서까지 天台敎學의 입문서로서 널리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宗을 통하여 불교 개설서로 애용하였던 책이다.

9)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圖板下 (京都: 便利堂, 1937), 121-124.



卷末

卷首

<그림 1> 『天台四教儀』

그 刊本은 李秉岐의 舊藏으로 高麗大學校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다만 國史편찬위원회에 悟幻이라는 스님에 의한 상세한 주석이라 추정되는 판본이 유리원판¹⁰⁾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판본의 형태는 선풍장 체재로 영문자 'W' 형태로 인쇄된 각 장은 8, 6, 6, 8행의 순서로 절첩되어 있고 전체는 28행 17자로 구성되어 있다. 板首題는 '台教'와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간혹 판수제 부분 하단에 刻手名으로 貫奇(제1, 2장), 莫漚(제7, 8장), 順然(제4장), 今取(제9, 11, 12) 등과 한 글자 정도만 확인되는 면수도 일부 보인다. 전체적인 본문 내용은 1315년 간행본과 비교할 때 거의 같고 문장의 배열위치도 유사하게 전개되어 있다.

1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편, 『유리원판 불교문화재도록』,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27-47.

3.1.2 天台四教儀 1315년 祈福都監版

한편 14세기 들어 祈福都監에서도 『天台四教儀』가 開板되었다. 교학개론서인 이 책은 천태교학의 이론체계를 ‘五時’와 ‘化儀四教’, 그리고 ‘化法四教’로 조직하고 ‘二十五方便’과 ‘十乘觀法’으로 실천체계를 확립한 대표적인 천태교학서인 동시에 불교 전반에 걸쳐 불교학을 새롭게 조직하고 체계화시킨 불교입문서이기도 하다.



卷末



卷首

<그림 2> 『天台四教儀』 (보물 제1052호, 경기도박물관 소장)

책은 개장된 5침안의 목판본으로 본문 형태는 계선이 없는 9행 17자, 小字는 쌍행으로 배열되어 있다. 판심 중의 어미는 윗부분에 작은 삼각형의 흑어미이며 판심제는 ‘台教’와 張次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부에는 각수명이 金守(제1장), 正一(제2, 4, 12, 27, 28장), 小[呂](제7, 25장), 行元(제18-21장) 등이 새겨져 있다.

권말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錄主觀師傳云嘗撰天台四教儀十年乃 /
畢藏千篋中薪盡之期趺坐而逝厥後神 /
光從篋中出開視之唯有一卷四教儀整 /
無他物斯乃言言句句皆符佛意無非感 /
應道交然耳故十方諸佛應機所說漸頓 /
權實之教法三乘之人隨根所修淺深遲 /
速之行門及一佛乘最上禪觀囊括始終 /
鍾在此書如執明鏡萬像斯現學佛之徒 /
爭相溫習者職由是也但舊本字大卷重 /
未便於齋持人皆病之今有門人大禪師 /
宏之倩人改書鋟梓流行欲資來學故茲 /
跋云延祐元年甲寅孟秋初吉牧庵老人 題 /
山人 水如書 /
二年乙卯五月 日 祈福都監開板 /

이 책의 舊本은 글자가 크고 무거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여 안타깝게 여기던 중 大禪師 宏之가 사람을 시켜 글을 쓰게 하고 祈福都監에서 판에 새겨 유통시키게 하였으니 이 때 水如가 登梓本을 쓰고 牧庵老人이 題를 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간행은 권말에 기록과 같이 1314년 8월에 水如가 다시 쓰고 이듬해 5월에 판각을 완성하였다.

책의 난상에는 전권에 걸쳐 묵서로 본문의 용어나 내용에 대한 주석이 있지만 集解에 수록된 것과는 서로 다르다.

(예시) 天台山者 上應 天之台星 故曰 天台山 亦云 天梯山 謂此山
高沃如梯 可以登而昇天
故曰 天梯山 後人訛云 天台 天者 顛也 顯也 在萬物之頂
顯然可見云云…

한편 이 판본은 2009년 2월 16일 경주 祇林寺에서 소장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고 있는 채색 塑造 三尊佛에서 1679년에 작성한 重修記와 더불어 가사, 적삼 등의 복식 數點과 앞에서 언급된 1315년 기복도감 간행의 『天台四教儀』를

비슷한 문헌도 여러 점이 발견된 바 있다.¹¹⁾

3.2 天台四教儀集解

『天台四教儀集解』는 고려시대의 고승인 諦觀이 천태사상을 집약해서 정리한 『天台四教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풀이한 것을 송나라의 승려인 從義(1042~1091)가 집해한 책이다.

3.2.1 木版本; 刊經都監版

3.2.1.1 고려대학교

이 책의 간행은 권말의 간기에 의하여 世祖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趙瑾의 글씨로 등재본을 쓰고 판각해낸 것이다.

권말간기; ‘天順八年甲申朝鮮國刊經都監奉 / 敎雕造’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臣 趙瑾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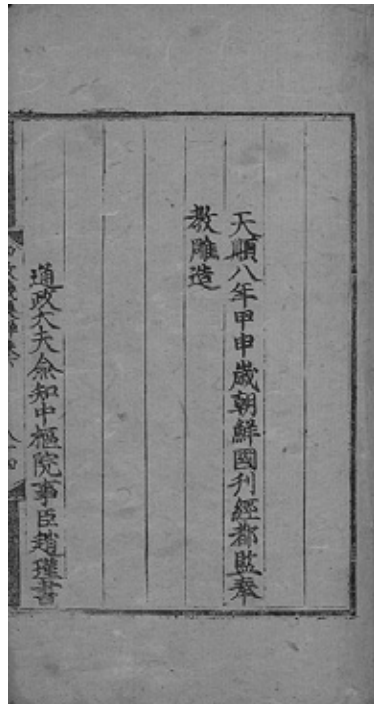
판식은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고 8행 17자, 小字雙行의 배열에 판심은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의 형식이다. 판심제는 ‘四教義集解’ ‘卷次’로 구성되어 있고 卷首題면에는 저자 표시로 ‘永嘉沙門 釋從義 集解’의 기록이 있다.

3.2.1.2 天台四教儀集解, 卷下(대구 보성선원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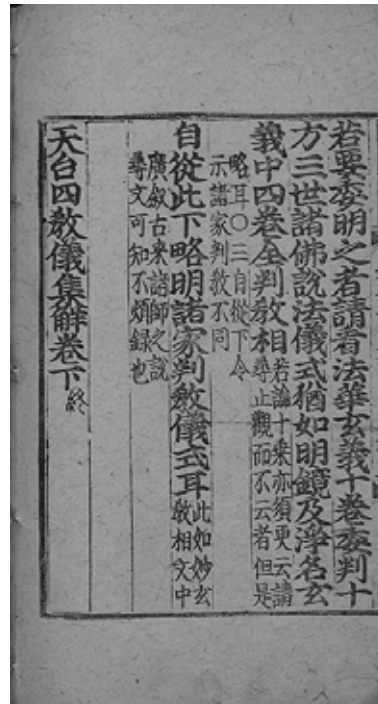
책의 형태사항은 목판본 1책(卷下) 84장의 零本으로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17.5cm이다. 제책은 5침안 선장본이며 표지가 결락되었고 권수제 부분이 약간

11) ‘media Buddha. net. 2009. 2. 19의 기사’에 의하면 기림사(주지 종광스님)에서 2008년 12월말 삼존불을 옷칠하는 과정에서 덧칠한 흔적을 확인하고 걷어낼 때 함께 발견되었다.

훼손되어 있다. 판식과 판심제, 저자표시 등은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같다.



卷末 刊記



卷末

<그림 3>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권말의 간기부분도 고려대학교 소장의 판본과 같은 1464년 간경도감판으로 같은 간행사실과 登梓本을 쓴 趙瑾의 기록이 동일하다.

판본의 두꺼운 닥나무와 藁精紙가 섞인 紙質과 두껍고 진한 서체 등 형태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刊經都監 간행본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3.2.2 活字本; 乙亥字版(朝鮮)

3.2.2.1 天台四教儀集解, 卷上(구인사 소장본)

- 권차: 3卷 1冊(上, 中, 下)
- 형태: 五針眼 線裝本

- 판본: 活字本(乙亥字)
- 저자: 永嘉沙門釋 從義 集解
- 크기: 30.2 × 19.7cm
- 판식: 有界, 四周單邊, 9行 17字, 白口, 上下內向 黑魚尾
- 발폭/축수: 2.7cm/14축
- 색차 값: 하권 24장 L76.8, a+6.1, b+20.3

이 책은 3권 1책으로 이루어진 5針眼 線裝本이며 판본은 조선 세조 때 주조된 금속활자인 乙亥字로 찍은 책이다.

판식을 보면 半匡은 가로 21.8cm, 세로 14.6cm이며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본문은 9행 17자며 註는 雙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장수는 53張과 半張이며, 54張의 1面은 缺張되어 있다. 지질은 楮紙이다.

판심제에 ‘四教儀集解卷上’이 기록되어 있고, 권수제는 ‘天台四教儀集解卷上’으로 나타난다. 표지서명은 ‘天台四教上’이, 書根題에는 목서로 ‘台上’, ‘台中’, ‘台下’라 쓰여 있다. 표지의 우측 하단에 목서로 총 책 수 표시인 ‘共三’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卷下末의 跋文을 살펴보면, “錄主觀師侍云 … 今有門人大禪師宏之倩人改書 鋟梓流行 … 延祐元年甲寅孟秋初吉牧庵老人題”이라는 내용은 이미 앞서 언급한 고려시대 1315년 祈福都監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의 발문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集解의 활자 판본을 편찬할 때 집해의 대상이 된 底本이 바로 기복도감 판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 내에서 목서로 懸吐가 나타나고 卷上의 뒤표지 내면에는 목서로 ‘印經施主進源比丘’가, 卷中の 뒤표지 내면에는 목서로 ‘甲子八月初八日 東林應靜’이, 卷下의 뒤표지 내면에는 목서로 ‘東林應靜’과 최근의 불펜글씨로 ‘備考 延祐甲寅은 西紀一三一四年也’가 기록되어 있다.

3.2.2.2 天台四教儀集解 卷上, 中, 下(高麗大學校 圖書館 所藏本)



<그림 4> 『天台四教儀集解』 卷首

- 저자: 永嘉沙門 釋從義 集解
- 권차: 3卷 1冊(上 · 中 · 下)
- 형태: 五針眼, 線裝本
- 판본: 金屬活字本(乙亥字)
- 크기: 31.3 × 19.8cm
- 판식: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黑魚尾, 半廓 21.6 × 14.6cm, 9行 17字, 小字雙行
- 발록: 2.6-3.1cm
- 권말간기: 延祐元年(1314)甲寅孟秋初吉 牧庵老人題
- 청구번호: 貴501, 등록번호 19160

이 책의 표지서명은 ‘天台集’이며, 표지는 개장되었다. 권수제와 더불어 저자표시는 ‘永嘉沙門 釋從義 集解’이며 종의라는 글씨는 다른 글자보다 약간 작게 하여 구분되게 하였다. 판심제는 ‘四教儀集解’며, 전체의 분량은 본문 내 상권 54장, 중권 66장, 하권 84장이며, 전체에 묵서 구결이 있다.

책의 서문은 “余治平四年(1067)冬 … 再定之文不須復留未治之本也”라는 종의의 서문이 있다. 이 서문에서 종의는 雪川의 科文으로 문장을 구분하고 나누어 여러 곳의 法言을 다시 편집하고 釋義의 대강을 정리하여 3권으로 편하여 四教集解하였다. 1076년에 雪川의 과문을 다시 보완하여 科文 1貼을 만들고 集解도 교정하여 3권으로 다시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을해자 판본은 계명대학교(중, 하권), 국립중앙도서관(상, 하권)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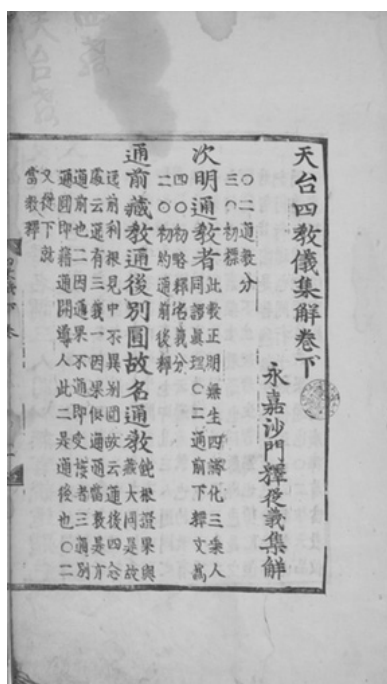
한편 본문의 판식으로 볼 때 몇몇 소장처에 전래되고 있는 을해자본과 이를 번각한 목판본은 글자의 행자수나 배열이 앞에서 살펴본 刊經都監版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3.2.2.3 木版本(乙亥字 飜刻版)

이 책들은 비록 번각본이지만 글자의 상태가 양호하고 정교하게 번각되어 을해자의 특징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3.2.2.4 木版本(1554년)

이 책은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의 소장본으로 권하의 영본 1책이다. 책의 表題는 ‘天台四教’이며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계선이 있고 9행 17자, 小字雙行의 배열과 판심의 魚尾 역시 上下內向黑魚尾로 을해자판이나 간경도감판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5>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卷首 (西臺寺 開板本)

책의 간기는 ‘嘉靖 三十三年 甲寅(1554)十二月日 全羅道珍山長嶺山 西臺寺 開板’으로 간행처는 西臺寺이고 조선 明宗 9년에 간행되었다.

책의 발문은 앞서 언급된 1314년 작성의 牧庵老人題의 내용과 동일하다.

4. 法華經 關聯 章疏類와 資料

4.1 天台三大部補注; 法華三大部補注

4.1.1 物理的 形態

이 책의 현존본은 권1-5까지의 목판본 零本 1책(78장)이다. 책의 앞뒤 표지는 없고 권수제는 ‘天台三大部補注’이며 이어 권차가 있고 그 아래 ‘妙玄 釋籤’이라

는 하부 영역의 표시가 권차별로 달리 표기되어 있다.

<표 2> 天台三大部補注의 권차별 서지사항

권수제	권차	권별내용	판수제	면수
天台三大部補註	卷第一	妙玄 釋籤	玄注	16
상동	卷第二	妙玄 二三 釋籤 三四	玄注	16
	卷第三	妙玄 釋籤	玄注	15
	卷第四	妙經 文句 文句記	句注	16
	卷第五	妙經 文句 文句記	句注 文句補注 句記 句注	15 (전78장)

책의 판면에는 板首題로는 ‘玄注 [卷次, 張次]’ 등이 쓰이고 저자표시는 각권의 권수에 ‘永嘉沙門 釋從義 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6> 『天台三大部補注』

책의 판식은 上下單邊에 匡高는 22.3cm, 全匡은 55.4cm의 크기에 글자의 배열은 서문이 글자 크기가 달라서 35행 19-20자이며 본문은 中·小字가 사용되어 대자는 19-23자, 소자는 26-30자의 분포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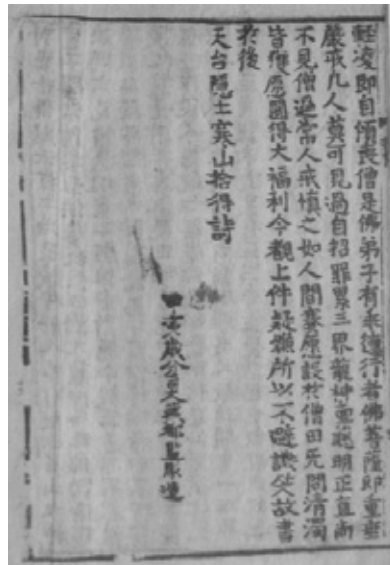
이 책의 간기는 3, 4, 5권의 말에 기록되어 있는 바 3권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 開板’이며 4, 5권에는 ‘乙巳歲 分司大藏都監 彫造’로 표기가 서로 다르다. 이때의 乙巳年은 고종 32년인 1245년에 해당하고 당시 대장도감에서는 281종 753권 15,293판이었으며 분사대장도감에서는 8종 30권 1,310판¹²⁾의 正藏에 해당하는 판을 판각하던 중이었다.

권말의 간기에 의하여 이 판은 再雕大藏經의 판각이 진행되던 같은 시기의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된 것이지만 판의 글자는 대장경의 한 행에 14자나 화엄경의 17자 형식과는 달리 작은 글자로 등재본이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장경의 補板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대체로 대장경의 판각이 끝난 후의 어느 시기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 판은 正藏의 간행시기와 같다는 데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정장과 같은 시기임에도 함차표시가 없는 점과 판식은 유사하나 행자수가 정장과도 다르고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補板들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을 주도한 대장도감은 高宗 38년(1251) 이후 均如의 『一乘法界圖圓通記』 2권 외에 간행한 다른 판본은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분사대장도감에서는 正藏과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책이 판각되고 있었다. 그 예로는 『東國李相國集』(1251), 『宗門撫英集』, 『重添足本禪苑清規』, 『注心賦』,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이상 4종, 1254) 등으로 판심을 중심으로 좌우로 접는 방식이지만 『天台三大部補注』는 35행의 권자본이나 절첩본 형태로 서로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다.

판본의 인출상태로 볼 때 판각된 글자들이 이미 剋缺이 많아서 문장을 판독할 수 없는 면이나 부분도 있지만 비록 판각된 글자들이 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인출의 상태가 양호하다. 특정부분의 훼손 상태는 당시의 목판관리가 正藏처럼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별도로 취급하여 소홀하게 관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2006), 186.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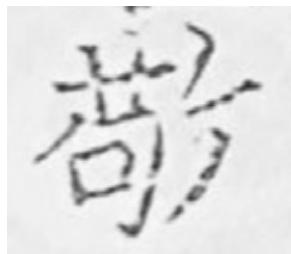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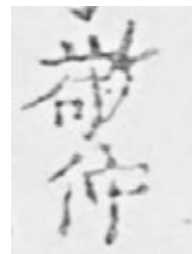
<그림 7>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송광사 소장본¹³⁾)

4.1.2 避諱와 刻手

본문에 쓰여진 글자에 있어서도 宋太祖와 관련된 避諱의 현상을 찾을 수 있어서 서문 17행 제8자인 ‘敬’자의 마지막 획이 缺劃되어 있고 제3권의 6장 33행(소자)의 ‘蔡倫造紙’의 항목 아래에서 6번째 글자인 後漢 蔡倫의 字가 ‘敬仲’이라는 설명에서도 결획이 나타난다. 그러나 권제4의 제1장 5행(소자)에서는 ‘敬’을 피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송 황제의 피휘인 ‘竟’에서는 피휘가 나타나지 않는다.



<序文> 17행 8자



<卷3> 6장 33행 6자

13) 송광사성보박물관,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서울: 태학사, 2004), 80-84.

한편 ‘建’, ‘武’, ‘字’ 등 고려왕에 대한 피휘도 나타나 제4권의 제1장 제12행(소자)에서 연호인 ‘建元十三年’을 표기할 때와 제47행(소자)의 제1, 8자의 같은 ‘建’의 마지막 획을 결획시킨 것도 고려 태조의 이름을 피휘한 것이다. 제4권의 1행(중자)의 ‘樞樞’의 설명에서 표제로 쓰인 ‘樞’자와 그 아래 설명에서 2회 인용된 ‘樞’에서도 모두 결획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1권의 제3장 ‘建業’과 ‘亦云建康’에서 ‘建’자는 피휘하지 않고 완전하게 쓰고 있다.

또 다른 피휘인 ‘武’에 대해서는 제4권 제2장 20행(중자)의 ‘西京賦云人生幾亡’과 그 아래 설명 중에서도 ‘賦’자의 우측 글자를 결획으로 처리하였다.

이 판본에는 板首題가 있는 우측하단에 再雕大藏經의 경우와 같이 해당 판을 새긴 刻手의 이름이 다음 표와 같이 새겨져 있다.

<표 3> 『天台三大部補注』 권1-5 刻手名 目錄

卷第一		卷第二		卷第三		卷第四		卷第五	
張次	刻手名	張次	刻手名	張次	刻手名	張次	刻手名	張次	刻手名
1	[宗]鍊	1, 2	玄正	2, 3	保延	2, 3	義[公]	3, 4	孝習
3, 4	學修	4	古[元]	4	[불명]	5, 6	慈世	9	戒行
5	丁義	5	長守	8, 9	宗植	7	[불명]	11, 12	惠堅
7	宗叙	8	地起	12, 13	正藏	8	光[]	13, 14	大能
8	安昌	9, 10	[尹]脩			10	惠堅	15	白玄
9, 10	得才	12	守[公]			11, 12	元進		
11	鄭洪	13, 14	得才			13, 14	朴文		
15	[榮]中	15, 16	飯賢			15, 16	全一		

이를 참고로 살펴보면 ‘得才’ 등은 재조대장경을 새긴 각수와 시기적으로 동시대이며 같은 도감에서 활동한 동일 인물들이라 추정된다.

4.1.3 智顗의 생애와 天台三大部の 성립

4.1.3.1 생애

『천태삼대부』는 천태 智顗가 찬한 『法華文句』, 『法華玄義』, 『摩訶止觀』을 합한 것이며 별칭으로 『法華三大部』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삼대부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지의의 생애와 더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의는 현재 중국의 湖南省, 즉 梁代의 荊州地方에서 大同 4년(538)에 출생하였고 속성은 陳氏, 자는 德安이었다. 그의 父는 양의 조정에서 벼슬을 지냈을 당시 梁은 554년 西魏에게 멸망하는 가운데 18세가 되던 後梁의 紹泰 1년(555)에 湘州 果願寺의 法緒의 문하로 출가하였다. 이후 慧曠律師(534~613)에게 율과 大乘敎를 배우고 衡州의 大賢山으로 가서 『法華經』, 無量義經, 普賢菩薩行法經과 당시 僧俗에서 유행되던 方等懺法을 수행하였다. 23세 무렵에는 光州의 大蘇山에서 誦經과 修禪을 중시하는 실천적 북방불교의 대표로 들 수 있는 慧思에게 法華三昧¹⁴⁾의 行法을 지도받았고 그의 영향으로 지의의 저술 대부분이 止觀 중심의 실천적 항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의는 혜사의 권유로 568년 陳의 金陵 瓦官寺에서 7년 동안 『大智度論』과 『次第禪門』을 강하였고 이후 38세가 되던 575년 北周 武帝의 불교 탄압을 피하여 천태산에 들어가 은거하면서 11년간 도를 닦았다. 그러나 陳 황실의 간청으로 48세가 되던 585년에 천태산에서 금릉으로 다시 내려와 이때부터 10년 동안 『法華文句』, 『法華玄義』, 『摩訶止觀』을 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자 灌頂(561~632)¹⁵⁾이 집필 정리한 것이 『天台三大部』라 불리는 책이다.

章安 즉 灌頂이 別傳에서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지의는 『次第禪門』을 1년 동안 강의하면서 章疏를 50권 저술하였으며 法華玄義, 圓頓止觀을 반년 간 설하면서 章疏를 각 30권을 저술하였다. 또 大華嚴寺의 法愼은 『禪門初分』 30권을 받아

14) 『法華經』에 의지하여 中道實相을 관조하는 것.

15) 章安: 『高僧傳』에 의하면 그의 명은 灌頂, 자는 法雲, 속성은 吳氏로 常州 義興人이다. 632년 8월 國淸寺에서 72세로 생을 마침.

刪定을 마쳤으며 灌頂은 『法華玄義』와 『止觀初分』을 각 10권씩을 기록하였다.¹⁶⁾

이러한 과정에서 지의는 혜사로부터 실천법을 배우고 금릉에서 이론불교를 익혔으며 천태산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다듬어 금릉으로 다시 내려와 이론과 실천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금릉에서는 至敬寺, 靈曜寺를 거치는 동안 황제의 명령으로 太極殿에서 『대지도론』을 강의하였고 이후 光宅寺로 옮기고 그곳에서 法華文句를 강의하였다.

589년 陳이 隋에 의하여 망하면서 황제의 요청으로 禪衆寺에서 몇 개월을 머물게 되었고 이 때 晉王 楊廣(양제, 580~618)에게 ‘智者’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다음의 행적은 여산을 거쳐 潭州, 衡州에 이르러 玉泉寺를 세웠고 그곳에서 593년에 『法華玄義』, 594년에 『摩訶止觀』을 강의하였다.

그의 만년에 해당하는 595년에 양주에 가서 양광에게 『維摩經疏』를 바치고 다시 천태산에 들어가 597년에 생애를 마쳤다.

4.1.3.2 저술

현재 지의의 저술로 알려진 것은 46종이며 자신이 직접 저술한 것과 그의 강의를 제자가 정리한 것, 지의의 이름을 빌려 유통된 것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의의 시기별 저술

568년	금릉 와관사	『方等三昧行法』 1권, 『次第禪門』 10권, 『法華三昧懺儀』 1권 『六妙法門』 1권, 『覺意三昧』 1권, 『禪門口訣』 1권 강술
575년	천태산	『法界次第初門』 3권, 『天台小止觀』 1권
585년	금릉	『法華文句』 10권, 『法華玄義』 10권, 『摩訶止觀』 10권
595년	양주	『維摩經玄疏』 6권, 『維摩經文疏』 28권 중 25권, 『觀心論』 1권 『三觀義』 2권, 사교의 12권

16) 『天台三大部補注』 권제1, 제3장 ‘止觀禪門淨名疏各有餘分說未終’條

4.1.4 體裁와 內容

이 책의 구성은 권수부분에 35행 19-20자 배열의 序가 있다. 이 서에 의하면 부처가 세상에 나서서 여러 경전과 많은 설법을 남긴 후 阿難이 결집하고 天親菩薩이 論을 지어 세상에 통용되었으나 널리 유포되지 못하였다. 중국으로는 鳩摩羅什이 번역한 이래 疏가 난립하여 갖가지 교상판석이 나타나고 이단이 많아지게 되었다. 隋代에 天台智者가 靈山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어 법을 펼칠 때 『玄文止觀』을 30권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을 세인들이 ‘三大部’라 불렀다. 이 삼대부의 어려운 부분과 文義를 풀이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從義가 여러 문헌들에서 가려 뽑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주를 달아 내용을 분명하게 하여 1부 14권으로 편찬하였다.

4.1.5 三大部 概要

『三大部』는 智顗가 강설한 천태종을 대표하는 세 가지 경전으로 『妙法蓮華經文句』(法華文句)·『妙法蓮華經玄義』(法華玄義)·『摩訶止觀』을 말한다. 이 세 가지 경전을 아울러서 『天台三大部』·『法華三大部』·『三大章疏』 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지의의 문인인 灌頂이 지의가 강의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¹⁷⁾

『法華文句』는 『법화경』의 문구를 풀이한 것으로 隋代 587년(개황 7) 金陵 瓦官寺에서 강의를 하였고, 『法華玄義』도 와관사에서 처음 설해진 뒤, 593년(개황 13) 荊州 玉泉寺에서 다시 설하게 되는데 『법화경』의 제목과 敎相을 밝혔다. 『摩訶止觀』은 『법화경』의 觀心을 해석한 것으로, 『法華文句』 및 『法華玄義』와 함께 강설되었다.

『삼대부』에 대한 주석으로는 『법화현의』에는 『법화현의석침』이 있고, 『법화문구』에는 『법화문구기』가 있으며 『마하지관』에는 『지관보행전홍결』이 있다.

17) 삼대부 주석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湛然的 『三大部科文』 16권·從義의 『三大部補註』 14권·法照의 『三大部讀敎記』 20권 등이 있다.

『釋門正統』 권318)에서는 『현의』는 제목을 풀이하고 교화의 뜻을 말하고, 『문구』는 경을 풀이하였으나 단지 문장을 풀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관』에 이르러 行法을 다루었으므로 교설은 『현의』와 『문구』에 있고, 행법은 『지관』에 있다고 하였다.

4.1.5.1 摩訶止觀

『摩訶止觀』 20권은 智顗가 만년에 설한 것을 제자인 灌頂이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이 완성되었으며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논술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이름으로 『천태마하지관』·『지관』 등으로도 불린다.

서문에 의하여 594년(開皇 14) 4월 26일 荊州의 玉泉寺에서 강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체재는 앞부분에 灌頂이 쓴 序分이 있고 다음에 大意·釋名·體相·攝法·偏圓·方便·正觀·果報·起教·旨歸 등의 10章이 있다.

序分에서는 通序와 別序로 나누고 통서에서 본서가 성립된 경과를 간략하게 설하였고, 별서에서는 金口相承과 今師相承의 두 상승설을 열거한 후 漸次·不定·圓頓의 三種止觀의 요지와 同異를 설명하였다.

이 책과 관련된 주석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간혹 지의와 다른 견해가 있어 후대에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湛然의 『止觀輔行傳弘決』 10권을 비롯하여 『止觀搜要記』, 『止觀義例』 1권, 『止觀大意』 1권 등이 있다.

그 밖의 다른 주석서로 대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止觀輔行傳弘決』

이 책의 권제119)에서 이 책은 시기별로 20권본, 廣本이라 불리는 10권본이

18) 『卍續藏』 130, 777b14.

19) 『止觀輔行傳弘決』 1권, 大正新修大藏經 46, 141b27.

“此之一部 前後三本 其第一本 二十卷成 并第二本十卷成者 首並題爲圓頓者 是爲異偏小及不定故 第異本 卽文初 列竊念者 是 其第三本 題意少異 具如後釋 初云止觀明靜者

있고 제목을 모두 圓頓이라 하였지만 당시 전하는 판본은 이와는 다른 略本으로 얼핏 보면 자세하고 간략한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분량에 차이가 없고 後者는 교정한 것으로 略本의 명칭은 맞지 않다고 하였다.

② 『摩訶止觀科』

이 책은 당나라 때 천태종의 6조로 이 종파를 중흥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湛然(711~782)이 지은 것으로 전체 6권이며, 智顗가 지은 천태종의 대표적 논서인 『마하지관』을 분과한 내용이다.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에 그 제목이 수록되어 있다.

③ 『摩訶止觀大意』

이 책은 당나라 때 담연이 『마하지관』의 요점을 정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은 것으로 1권이며, 『止觀大意』라고도 한다.²⁰⁾

④ 『摩訶止觀刪定止觀』

이 책은 당나라 때 저명한 유학자인 梁肅(751?~793)이 지은 것으로 일찍이 불교에 귀의하여 湛然으로부터 천태종의 교의를 배워 그 요체를 체득한 후 이 책 6권을 저술하였으며 그 밖에 천태종과 관련된 여러 논서와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에 제목이 수록되어 있다.

⑤ 『摩訶止觀搜要記』

이 책은 당나라 때 湛然이 저술하였으며 『摩訶止觀輔行搜要記』의 약칭으로 모두 10권이다.²¹⁾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에 제목이 수록되어 있다.

是今之所承 卽第三本 時人相傳多 以第三而爲略本 以第二本 號爲廣本 一往觀之 似有廣略 尋討始末 紙數乃齊 應以第三 爲再治本 不須云略”

20) 『大正新修大藏經』 46, 459a10~462a2, No. 1914.

21) 『卍續藏』 99, 221a1~460c12.

⑥ 『摩訶止觀弘決』

이 책은 당나라 때 湛然이 지은 것으로 모두 40권이며 『摩訶止觀輔行傳弘決』이라고도 불리는데,²²⁾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에 제목이 수록되어 있다.

4.1.5.2 法華文句

『法華文句』 20권은 智顗가 隋나라 587년(정명 1)에 金陵 光宅寺에서 제자들에게 강설하고 灌頂이 기록한 『법화경』 주석서이다. 『妙法蓮華經文句』의 약칭으로 『法華經文句』·『文句』·『妙句』라고도 한다. 北宋 때인 1024년(천성 2)에 慈雲遵式이 奏請하여 入藏된 이 책은 『법화경』의 문구와 경문의 조직과 구성을 해석하여 『법화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책에 대하여 唐代의 湛然이 주석한 『法華文句記』가 있고, 明代에도 紹覺이 이 책에 答연의 『법화문구기』와 합친 『法華文句會本』 30권을 편찬해서 유통시켰다. 宋代 守倫의 『法華經科註』 10권, 元代 徐行善의 『法華經科注』 8권, 明代 一如의 『法華經科注』 7권 등은 이 책에 의하여 『법화경』을 주석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二科로 나누고 大科를 三分하여 「序品」을 序分으로, 제2 「방편품」에서 제17 「분별공덕품」 19行 偈의 끝까지를 正宗分, 그 이하를 流通分으로 나누었다. 또 本門과 迹門의 二門으로 나누었는데, 적문은 초반부 14품, 본문은 후반부 14품으로 구분하였으며, 본문과 적문마다 각각 서분·정종분·유통분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이 책은 天台宗의 독창적인 경전 해석방식으로 경문을 해석한 것이 특징으로 『법화경』을 분석하는 데에 因緣釋·約教釋·本迹釋·觀心釋 등 네 가지 방법의 해석법(四釋)²³⁾이 쓰였다. 이 책에서는 천태종의 입장에서 기존의 『법화

22) 『大正新修大藏經』 46, 141a2~446c23, No. 1912.

23) 因緣釋은 부처님과 중생의 인연에 기초하여 경문을 해석하는 방법

約教釋은 경전의 문구를 五味 八教로 해석하는 방법

本迹釋은 『법화경』을 本門과 迹門으로 해석하는 방법

觀心釋은 『법화경』에 설해진 각각의 내용을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 실상의 이치를 관하여 해석하는 방법

경』에 대한 여러 해석을 분석하여 천태종과의 사상적 차이를 드러내었다.

4.1.5.3 『法華玄義』

이 책은 智顗가 593년(개황 13) 荊州 玉泉寺에서 강술한 것에 대하여 灌頂의 기록을 바탕으로 엮은 책으로²⁴⁾ 완전한 서명은 『妙法蓮華經玄義』이며, 『玄義』, 『妙玄』 등으로 약칭되어 불리기도 한다.

『불조통기』 권25에 “慈雲據式的 『교장수함목록』에서 이르길 『법화현의』는 오직 제목만 해석한 것임에도 통괄적으로 오시를 밝혔고, 팔교를 자세히 가려냈으니, 출세간의 근본적인 뜻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한 말이 이 책의 특징을 나타낸다.

본서는 五重玄義라는 서술형식, 즉 釋名, 辨體, 明宗, 論用, 判敎와 七番共解라 하는 標章, 引證, 生起, 開合, 料簡, 觀心, 會異의 조목을 통론으로 밝히는 형식과, 五重玄義를 해석하는 五重各說로 이루어져 있다.

釋名(경의 제목을 해석): 권1하 중간~권8상 중간

辨體(제시되는 진리의 특징을 밝힘): 권8상 중간~권9하 중간

明宗(교설에서 의도하는 요지가 어떤 것인지를 밝힘)

論用(의심을 끊고 신심을 일으키는 효용이 있다는 점을 서술):

권9하 중간~권9하 끝

判敎(이 경이 불교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판정): 권10상~권10하

이 책을 기록한 관정이 남긴 『雜錄』은 강술자인 지의와는 관계없는 글로서 본문 중에도 관정이 보충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지의의 설이라 볼 수 없으며 각 부분이 누구의 설인지 가려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앞부분의 『法華私記緣記』는 관정이 기록하게 된 연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의 제목을 해석한 『私序王』과 지의가 경의 제목을 해석한 『序王』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唐代的 湛然은 천태의 삼대부에 대하여 주석을 달았는데, 그중 『법화현의』에

24) 『大正新修大藏經』 33, 681a1~814a19, No.1716에 수록되어 있다.

대한 주석서는 『法華玄義釋籤』이고 『釋籤緣起序』는 담연의 제자 普門이 763년(광덕 1)에 지었다. 『법화현의석침』은 科文을 명시하고, 각 문구의 뜻과 함께 개별적인 글자의 뜻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중 『十不二門』은 적문십묘석과 본문십묘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이후 북송, 남송 시기에 별도로 간행되어 연구와 주석의 근거가 되었음은 물론 異說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담연은 지의 이후에 번성했던 三論宗, 法相宗, 華嚴宗 등의 사이에서 천태의 종지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중 『석침』은 후대 『법화현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었다. 1583년에는 천태산의 眞覺이 『玄義』와 『釋籤』을 합간한 이후로 『법화현의석침』의 會本으로 유통되었다. 『석침』에 대한 주석서로는 法照의 『讀教記』 7권, 從義의 『補注』 3권, 善月の 『妙玄格言』 2권, 有嚴의 『玄籤備檢』 4권 등이 있다.

앞에서 논의된 관련 저술은 다음과 같다.

① 『法華玄義釋籤』

이 책은 764년(광덕 2)에 荊溪 湛然(711~782)이 智顗의 『法華玄義』를 해설한 것으로,²⁵⁾ 『天台法華玄義釋籤』, 『法華釋籤』, 『玄義釋籤』, 『玄籤』, 『釋籤』, 『妙法蓮華經玄義釋籤』 등으로 불린다. 『법화현의』의 본문을 내용에 따라 나누고 먼저 본문을 제시한 다음 문장의 뜻과 글자의 개념을 해석하였으며 주요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三論宗의 吉藏, 法相宗의 窺基, 華嚴宗의 法藏, 慧苑, 澄觀 등의 설을 평가하거나 반론을 펼쳐 천태종의 종지를 드러내고 후세의 『법화현의』를 연구하는 후학에게 지침서가 되었다.

② 『法華玄贊』

이 책은 法相宗의 유식학 입장에서 『법화경』을 해석한 것으로 窺基(632~682)가 지었다. 총 10권이며²⁶⁾ 『묘법연화경현찬』, 『법화경현찬』, 『현찬』이라고도 한

25) 『大正新修大藏經』 33, 815a1~963c21, No.1717.

다. 본서는 『攝大乘論』 등의 설에 의거하여 일승의 방편과 삼승의 진실이라는 입각점에서 천태종과 화엄종의 설을 비판하였으며 世親의 『法華論』, 劉虬의 『注法華經』, 慧表의 『注無量義經』 등을 인용하여 원전에 충실하였다.

책의 내용은 『법화경』이 일어난 원인을 서술하고, 이어 경의 종지를 천명함과 더불어 각 품의 이름을 해석함으로써 각 품의 의미와 순서를 드러낸 뒤에 경의 본문을 해석하였다. 주석서로는 『法華玄贊義決』 1권, 『法華玄贊攝釋』 4권, 『法華玄贊決擇記』 8권 등이 있다.

③ 『法華玄贊義決』

이 책은 혜沼가 편찬한 것으로 窺基가 지은 『법화현찬』에 대한 주석서로 三乘敎의 입장에서 一乘敎를 비판하였다. 성립연대는 7~8세기경으로 추정되며 본래 4권이었으나, 현재는 1권만 전해진다.²⁷⁾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의 『海東有本見行錄』에 ‘義決一卷 慧沼 述’이라는 기록이 있다.

앞에서 언급된 주석서 외에도 고려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으로 『三大部節要』가 있다. 이 『삼대부절요』는 고려시대 천태종 了世(1163~1245)의 저술로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천태종 스님이기 때문에 『삼대부절요』의 ‘三大部’를 『법화문구』·『법화현의』·『마하지관』 등으로 추정하고 이 세 책에서 중요한 것을 節要하여 만든 책으로 짐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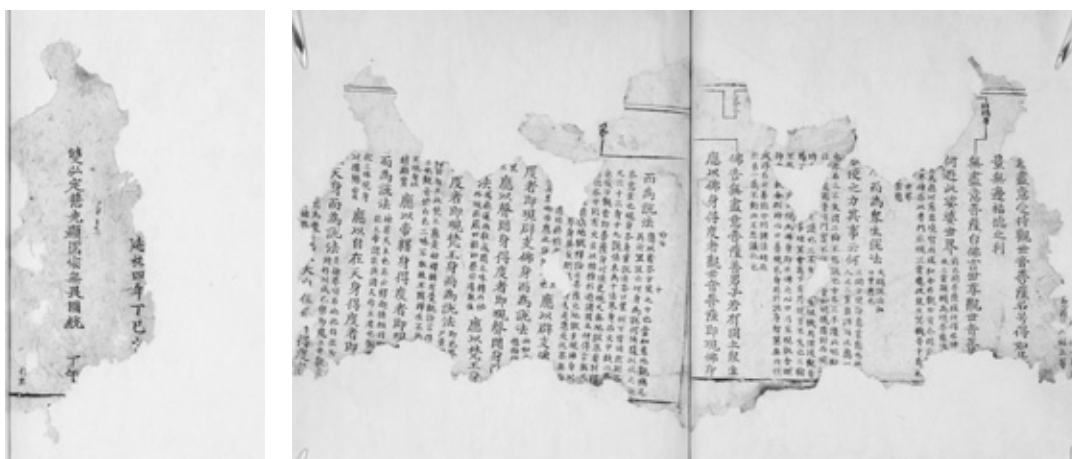
이 『삼대부절요』와 관련된 기록으로 崔滋가 찬한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序』에 일찍이 스스로 천태종의 교설은 그 내용을 담은 책의 분량이 바다처럼 거대하여 배우는 이들이 도달할 나루터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되므로 이에 삼대부에서 綱要를 뽑아 『삼대부절요』를 만들고 판각하여 유포하였고 후진들이 대부분 이 책에 의지하여 천태종을 이해했다고 언급이 되어있다.

26) 『大正新修大藏經』 34, 651a1~854b23, No.1723.

27) 『大正新修大藏經』 34, 854c1~870c2, No.1724.

4.2 科注妙法蓮華經

『과주묘법연화경』은 송 守倫이 저술하고 명의 法濟가 참정한 10권본과 元 徐行善의 8권본, 명의 一如가 집주한 7권본의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내용과 본 소장본은 과주부분이 달라서 다른 계통의 과주본이거나 無畏丁午 스님이 독자적으로 과주를 단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그림 8> 『科注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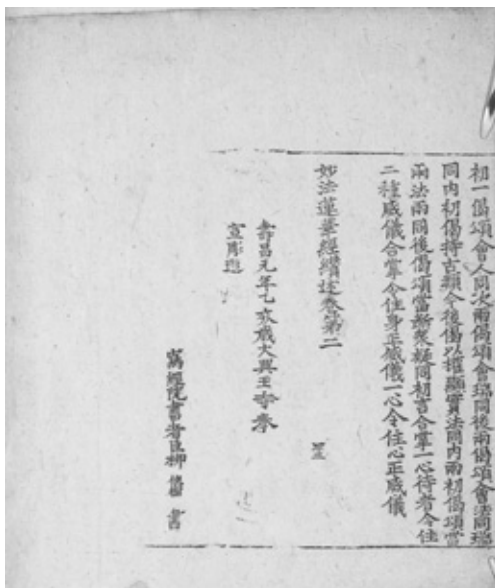
- 권차: 7
- 형태: 선장, 1책
- 판본: 木板本
- 크기: 39.1 × 36.5cm
- 판식: 四周單邊, 無界, 行字數不定
- 권말기록: 延祐四年丁巳[](1317) … 雙弘定慧光顯圓宗無畏國統 丁午

본 소장본은 거의 본문의 일부만 남아 있는 등의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하다. 전체 27장이며 사주단변에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판수제는 ‘妙’이며 권말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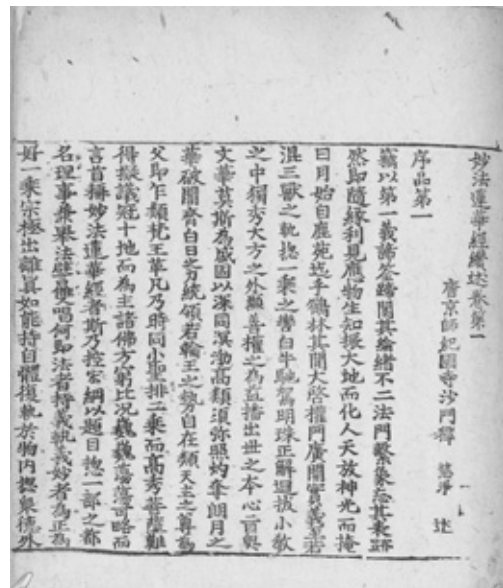
28) 강순애 외,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33.

‘延祐四年丁巳(1317)[]雙弘定慧光顯圓宗無畏國統 丁午’의 간기 등에 의하여 1317년에 지방 사찰에서 간행된 후 송광사에 전래되어 사천왕상의 복장 불사 때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4.3 妙法蓮華經贊述



卷2 卷末 刊記



卷1 卷首面

<그림 9> 『妙法蓮華經贊述』

- 권차: 1, 2, 5, 6
- 형태: 선장, 2책
- 판본: 木板本
- 크기: 37.4 × 32.4cm
- 판식: 四周單邊, 無界, 全匡 23.8 × 57.1cm, 30行 22字
- 권말기록: 壽昌元年乙亥歲(1095) 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秘書省楷書同正臣 南宮禮 書

寫經院書者臣 柳候樹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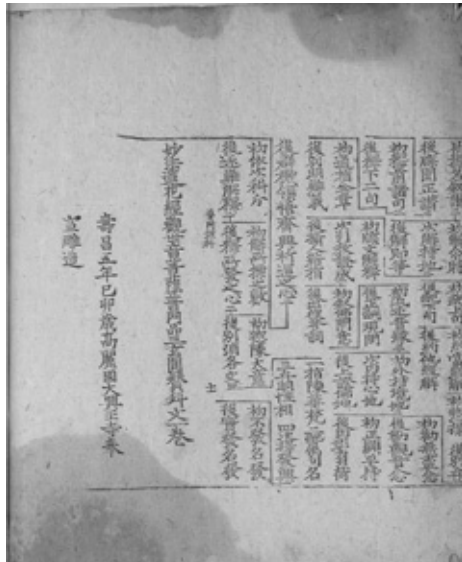
이 책은 고려시대 敎藏都監版의 重修本 계열로 먼저 물리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이 판본은 원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좌우단변을 판각하여 선장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간경도감본의 특징인 고정지가 섞여 있는 楮紙이다. 전체 장수는 권1의 경우 41장, 권2는 42장, 권5는 45장, 권6은 39장이다.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편이며 훼손된 원본을 위해 표지 및 본문이 보수되었고 보수된 책 크기는 세로 37.4cm, 가로 32.4cm이다.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한 판면에 30行 22字이고 全廓은 세로 23.8cm, 가로 57.1cm이다.

표제서명은 권수제와 동일한 제첨형식으로 글자는 인쇄되었으며, 제첨의 크기는 세로 25.8cm, 가로 5.0cm이다. 권수제 다음에는 저자사항이 ‘東京師紀國寺沙門釋 慧淨 述’로 표기되어 있다. 판미제는 ‘法花續述’이며 『신편제종교장총록』에서의 ‘續述 十卷 慧淨 述’에 해당한다.

본문의 경우 권5의 제20장이 결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내 표지에 ‘五 卅丈本无’라고 묵서되어 있다. 또한 권5의 제14장의 경우 글자를 다른 장과 비교해보면 글자체가 서로 달라 제14장이 보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1의 5장과 6장은 ‘幸中’이 제 28장에는 [道戊]의 각수명이 확인되며 제10장 및 제18장은 각수명의 흔적이 남아 있다.

각 권말을 살펴보면 먼저 권1은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興王寺奉宣雕造’의 간기 다음에 ‘秘書省楷書同正臣 南宮禮 書’라는 기록이 나타나며 권2는 교장도감의 기록 뒤에 ‘寫經院書者臣 柳候樹 書’라는 저본의 필사자 기록이 있다. 이 판본도 역시 교장도감의 원간기가 나타나며 중수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간경도감본과 지질, 판식 및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같은 간경도감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권1, 2가 1963년에 먼저 보물 제206호로 지정되었으며 권5, 6은 2004년에 발견된 것으로 보물 제1468호로 지정되었다.

4.4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圖贊科文



卷末



卷首

<그림 10>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圖贊科文』 卷1

- 형태: 선장, 1책(11장)
- 판본: 木板本
- 크기: 37 × 31.4cm(원본: 36.5×31.4)
- 판식: 四周單邊, 無界, 全匡 22.2 × 53cm, 30行 字數不定
- 축수: 17축
- 권말기록: 壽昌五年己卯歲(1099) 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이것은 思孝에 의해 저술된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의 삼현원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성된 과문이다. 科文이란 本文에 수록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의 要語를 뽑아내어 세로와 가로로 줄로 연결하여 지은 것이다. 현재 『삼현원찬』은 전해지지 않고 과문 1책만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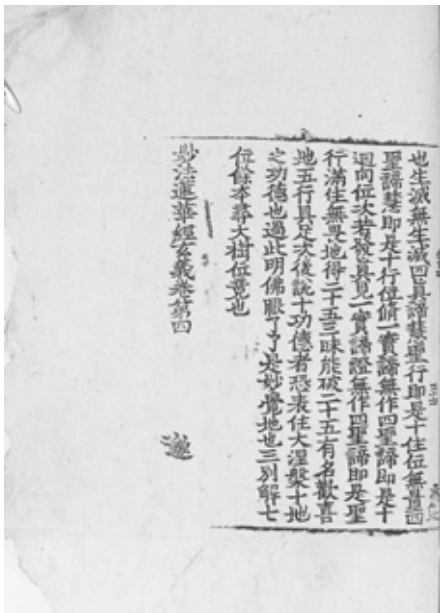
이 책은 고려시대 敎藏都監版의 重修本 계열로 물리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원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좌우변란을 판각하여 선장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간경도감본의 특징인 고정지가 섞여 있는 저지이다. 전체 11장으로 구성된 단권 1책이다.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지 및 본문이 보수되었고 보수된 책 크기는 세로 37cm(원본 36.5cm), 가로 31.4cm이다. 변란은 사주단변에 쏘头条은 세로 22.2cm, 가로 53cm로 나타나며 행수는 한 판면에 30行이나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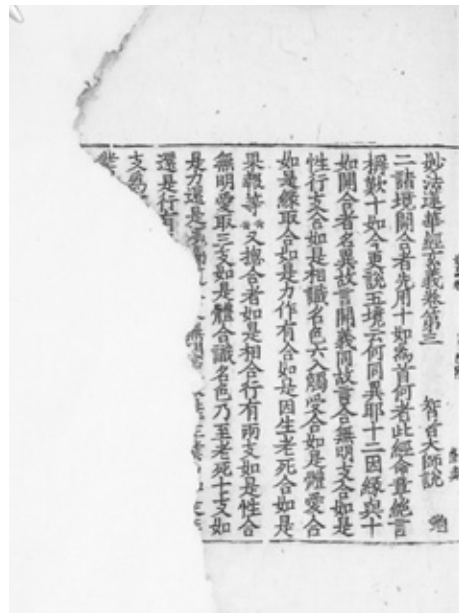
표지서명은 없고 권수제 다음에는 저자사항이 ‘覺花島海雲寺 崇祿大夫守司空輔國大師 賜紫沙門 思孝 科定’으로 표기되어 있다. 판미제는 ‘普門疏科’이며 총록에서는 ‘法華經 三玄圓贊二卷 圓贊科一卷 已上 思孝 述’에 해당한다.

권말에는 1099년에 교장도감에서 조조하였다는 ‘壽昌五年己卯歲(1099) 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원간기가 표시되어 있다. 중수기록은 없지만 서체, 판각기술, 지질 등의 특징들을 미루어 세조조의 간경도감에서 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물 제204호로 지정되어 있다.

4.5 妙法蓮華經玄義



卷4 卷末



卷3 卷首

<그림 11> 『妙法蓮華經玄義』

- 권차: 3, 4
- 형태: 선장, 1책
- 판본: 木板本
- 크기: 40 × 31cm
- 판식: 上下單邊, 無界, 全廓 23.7 × 54.1cm, 30行 20字 註雙行
- 발폭/촉수: 2.2~2.8cm/19촉

이 책은 고려시대 敎藏都監版의 重修本 계열로 물리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이 판본은 원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선장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벗짚이 섞인 藁精紙와 楮紙가 섞여 있다. 전체 장수는 권3의 경우 30장이고 권4는 35장이지만 제1장부터 15장까지는 좌, 우측 부분의 훼손 정도가 크다. 훼손된 부분의 표지 및 본문이 보수되었고 보수된 책 크기는 세로 37cm, 가로 31.4cm이다.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쏘튼은 세로 23.7cm, 가로 54.1cm로 나타나며 행자수는 한 판면에 30行 20字이고 註雙行이다.

표제서명의 경우 표지의 훼손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제침의 묵서된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내지에는 ‘更奉校崇’의 묵서기록이 남아 있으며 본문 권수제 밑에는 ‘智者大師 智顗 說’의 저자사항과 그 아래 함차에 해당하는 ‘邈’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 판본은 조사된 다른 책들과는 달리 판면의 앞 연결부분에 판수제가 나타나는데 먼저 권수제면에서는 ‘妙玄’이라는 판수제와 그 아래에 ‘崔堯’라는 각수명이 기입되어 있다. 제2장부터는 판수제 아래에 장차 및 함차, 각수명이 새겨져 있는데 함차 표시의 경우 각수명이 기입된 경우에만 나타난다. 총록에서는 ‘玄義十卷 智者說’에 해당된다.

‘邈’ 함차는 초조대장경의 추조본의 마지막 함차인 ‘洞’보다 비교적 앞에 위치하지만 이를 포함하는 대장경의 함차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본문의 우측하단 면에는 각수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妙法蓮華經玄義』에 나타나는 각수

권차	장차	각수명	권차	장차	각수명
3	1, 2	崔堯	4	11, 12	六但
	5, 6	正然		13, 14	尹宣補
	7, 8	戒宗		17, 18	高悅
	15, 16	長成		19, 20	法均
	19, 20	高悅		21, 22	僧初手守心
	25, 26	康柱		23, 24	李藏
	29, 30	金鉉		25, 26	正然
4	2	高戒林		27, 28	松永
	3, 4	可全		29, 30	康柱
	7, 8	志大		33, 34	高仁立
	9, 10	仁[]			

이처럼 판본에 나타나는 각수는 18명이며, 이 중 조사된 『법화문구기』에 새겨진 각수명과 비교해보면 중복되는 각수가 8명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각수로는 正然, 康柱, 高悅 등이 있다.

권말에는 원간기 또는 중간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책의 저본은 6行씩 구분하여 판각한 형태의 절첩을 번각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전형적인 교장도감본과의 판식과는 차이가 있다. 새겨진 글자 획의 경우 왕실간본보다 판각 기술이 떨어지는 지방사찰본의 성격이 나타나 전래된 중국 간본을 바탕으로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선행 연구에서는 교장도감본을 바탕으로 독송에 편리한 절첩식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6행씩 구분, 번각하여 새긴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번각의 경우 행간을 조정하여 다시 새긴 예는 흔치 않으며 오히려 함차 표시 등을 볼 때 그 저본은 중국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보이는 조선전기의 서체나 벗짚이 섞인 저지의 지질과 판각의 글자비교를 통해 조선전기까지 보각된 양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보물 제1468호로 지정되어 있다.

4.6 法華文句記

이 책은 고려시대 敎藏都監版의 重修本 계열로 물리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이 판본은 원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좌우단변을 판각하여 선장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고정지가 섞여 있는 저지이다. 전체 장수는 권5의 경우 39장, 권6은 35장, 권7은 39장, 권8은 38장이다. 책 크기는 세로 42.2cm, 가로 29.2cm이고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한 판면에 30行 25字이다. 全匡은 세로 24.2cm에 가로 54.5cm이며 발폭은 1책(권5, 6)은 3.2cm이고 다른 1책(권7, 8)은 1.7~2.5cm이다. 축수의 경우 1책(권5, 6)은 3cm 이내에 19축이며, 다른 1책(권7, 8)은 18축으로 확인된다.



卷7 卷末



卷5 卷首

<그림 12> 『法華文句記』

- 권차: 5, 6, 7, 8
- 형태: 선장, 2책
- 판본: 木板本

- 크기: 42.2 × 29.2cm
- 판식: 四周單邊, 無界, 全匡 24.2 × 54.5cm, 30行 25字
- 발폭/측수: 3.2cm/19측, 1.7~2.5cm/18측

표제서명은 묵서된 제첩형식으로 제첩의 크기는 세로 18.7cm, 가로 4.0cm이다. 권수제 다음에는 저자사항이 ‘天台沙門 湛然 述’로 표기되어 있다. 제1장에는 판수제가 나타나지 않고 제2장부터 ‘妙樂’이라는 판수제가 나타난다. 총록에서는 ‘文句記 十卷 湛然 述’에 해당된다.

본문의 우측하단 면에는 각수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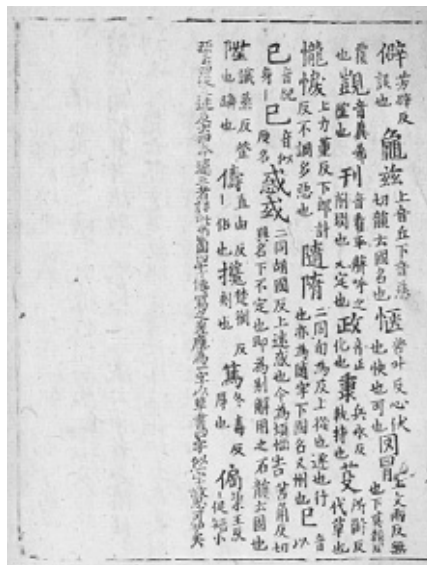
<표 6> 『法華文句記』에 나타나는 각수

권5		권6		권7		권8	
1, 2	宗扑	1	高悅	1, 2	興眞	1, 2	法琪
5	若丁	3, 4	行元	5, 6	行元	3, 4	宗扑
11, 12	良右	7, 8	德成	8	金守英	9, 10	眞悟
16	戒宗	9, 10	用玄	11, 12	李藏	11, 12	法藏
19, 20	法琪	17, 18	守堅	13, 14	定心	13	金日尔
22	金景	19, 20	高仁立	15, 16	方悅	16	法琪
25, 26	文李夜	21, 22	宗扑	17, 18	松壽	20	宗扑
27, 28	守英	3, 24	松永	19, 20	法行	21	長成
29, 30	崔堯	27, 28	万玄	21, 22	用玄	23, 24	梁世
31	善心	29, 30	石全	23, 24	丁云	25, 26	永堅
33, 34	松令	31	高悅	25	[][]	27	高英輔
36	金英	33, 34	良右	26	正然	31, 32	万元
37, 38	法行	35	梁智	29, 30	高仁立	33	長成
39	梁智			31, 32	梁智	34	李洪
				33, 34	玄世	35, 36	正然
				35, 36	興眞	37, 38	玄[]
				39	康柱		

이처럼 판본에 나타나는 각수는 41명이며 이 중 조사된 『묘법연화경현의』에 새겨진 각수명과 비교해보면 중복되는 각수가 8명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각수로 正然, 康柱, 高悅 등이 있다.

권말에는 간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각수명 중 동일 인물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중간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법화문구기』도 『묘법연화경현의』와 함께 13세기 지방사찰에서 중각된 것으로 또한 조선 전기에 이르러 마멸되고 일실된 부분에 대한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4.7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 卷末 音釋



卷1 卷首

<그림 13>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 권차: 1, 2
- 형태: 線裝, 1책
- 판본: 木板本
- 크기: 39.0 × 24.5cm

- 판식: 四周單邊, 無界, 全匡 24.6 × 37.6cm, 22行 22字
- 발폭/측수: 2.8~3cm/16-17축

고려시대 敎藏都監版 계열의 廣敎院版 重修本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이 판본은 원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좌우단변을 판각하여 선장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고정지가 섞여 있는 저지이다. 현재 제1~2권만 남아 있는 零本 1책이며, 전체 장수는 권1의 경우 71장, 권2는 66장이다. 책 크기는 세로 39.0cm이고 가로 24.5cm이고 변란은 사주단변의 변란에 행자수는 한 판면에 22行 22字이다. 全匡은 세로 24.6cm에 가로 37.6cm이며 발폭은 2.8~3cm이고 측수는 3cm 이내에 16~17축으로 확인된다.

본문의 권수제 다음에는 저자사항이 ‘燕臺憫忠寺沙門 詮明 集’으로 표기되어 있다. 판수제는 ‘玄妙’이고 본래의 판본이 23행을 한 판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수제가 1행과 2행 사이에 나타난다. 총록에서는 ‘會古通今抄 十卷 詮明 述’에 해당된다.

본문을 살펴보면 제1장에 권수제가 시작되고 제3장에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 두 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제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문에는 그 제목 아래에 ‘宋本無字 遼本有之 寫而彫出 以補其闕’이라고 쌍행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본문은 송본을 바탕으로 하고 송본에 없는 서문의 경우 요본에 의거하여 필사 보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질의 경우 벚짚이 섞인 저지로 나타나 간경도감에서 이 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권1의 권말제 다음에는 음석이 표기되어 있고, 본 책은 현재 보물 제1468호로 지정되어 있다.

4.8 弘贊法華傳

이 책의 물리적인 외형은 零本 1冊이며 수록 내용은 卷6부터 卷8까지 인 5針眼線裝本으로 크기 28.8 × 19.4cm에 두꺼운 楮紙에 印出된 것이다.



<그림 14> 『弘贊法華傳』²⁹⁾

형태면에서의 특징은 版型에 있어서 宋이나 高麗때의 版本임을 짐작하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版心 아래에 刻手名이 표시되어 있는 바 正安³⁰⁾이 제7권의 제1장, 제9권의 제16장, 제8장의 제15-20장에 각각 새겨져 있으며 存植은 제8권의 제1~14장까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책은 약칭하여 『法華經』이라 불리며,³¹⁾ 三國부터 中唐에 이르기까지 『法華經』와 관련된 流轉, 研究, 誦持한 사람들이 얻은 영험한 사실을 傳記體로써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한 가지 경전이나 신앙에 대한 雜傳을 모은 유형의 자료로는 法藏의 『華嚴經傳記』, 戒珠의 『淨主往生傳』과 感應傳 방면은 非濁의 『三寶感應要略錄』 등이 있다.³²⁾

29) 남권희, “13세기 天台宗 관련 高麗佛經 3종의 書誌的 考察; 圓覺類解, 弘贊法華傳, 法華文句并記節要,” 『書誌學報』 제19호(1997), 43.

30) 正安이라는 刻手名은 高麗板의 여러 곳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 ① 再雕大藏經중 大般若波羅蜜多經(1238-1242), 大方傳佛報恩經(1243), 大方廣佛華嚴經 行願品, 金剛般若波羅蜜經, 佛說預修十王生七經(1245)
- ② 金光明經 卷3, 卷子本, 釋讀口訣本の 제7장 하단(南權熙, 1994)
- ③ 禪門三家拈頌集 권1-6, 朝鮮 刊經都監 飜刻本(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151)
高麗의 初刊은 1246년경으로 추정됨

31) 『佛光大辭典』, 1926.

32) 上掲書, 2676.

4.8.1 慧詳

이 책의 撰者인 藍谷沙門 慧詳은 惠詳이라 쓰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적은 분명하지 않고 『弘贊法華傳』의 第十玄際의 傳에 唐 神龍 2년(706)의 기사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저술로는 『古清涼傳』 2권³³⁾과 『法華經傳記』 10권이 있고 이 책의 권말 기록에서 圓智는 특히 그가 『法華經』의 應驗에 관하여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였다.

4.8.2 간행 사실

책의 版式은 외형적인 특성으로는 高麗時代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大正新修大藏經』(卷51:47)에 전하는 慧詳 撰의 『弘贊法華傳』 卷10 뒤에 수록된 跋을 참고할 수 있다. 즉,

『홍찬법화전』은 東晉으로부터 唐에 이르기까지 『法華經』을 구하여 영험을 얻은 사람들이 인연에 의하여 구원받는 기록들이나 이제 해동에는 오직 필사본만 있을 뿐 오래되어 기록이 잘못된 곳이 많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내가 비록 불민하나 이를 교정하여 널리 유통시키고자 판에 새겼다 …

… 時天慶五年 歲存乙未 季春月十七日 於內[帝]釋院 明慶殿記 海東高麗國 養龍山 弘化寺 住持 究理智炤淨光處中吼石法印 僧統賜紫沙門 德緣 勘校 文林郎司宰承 同正 李堂翼 書

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許興植은 睿宗 10년(1115)에 瑜伽宗僧 德緣[淵]이 이 책을 간행하여 天台學에서 중시한 경전들의 經論을 흡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그 간행의 시기를 敎藏과 관련지어 大屋德城³⁴⁾은 敎藏의 미완성을 증명하는 다음의 한 예로 “… 天慶5年(1115)에 弘化寺의 住持인 德緣이 『弘贊法華傳』 10권의 간행을 시도하였다 …”라는 기록을 들었다.

33) 『望月佛教大辭典』, 1661.

34) 『高麗續藏雕造攷』(1936), 63-64.

한편 『弘贊法華傳』의 간행과 관련하여서는 版下本을 쓴 李堂翼과 더불어 교정을 주관하였던 인물로서 日本에 있는 『弘贊法華傳』 자료의 기록 중 1115년에 이미 “이 책은 高麗國에 있는 유일한 草本으로서 잘못된 곳이 아주 많아서 독자들이 이를 병으로 여기므로 이를 고쳐 간행코자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때의 天慶 5年은 義天이 입적한 후 14년이 되는 해이다.

즉 1115년에 高麗國에 있는 유일한 草本에 의하여 10권으로 간행된 책이므로 敎藏의 주 간행기간이었던 1091년부터 1011년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당연히 당시까지는 『弘贊法華傳』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밖에 日本 傳來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에서 언급한 1115년의 기록이 있는 책의 권말에서 日本으로의 전래는 1120년 7월에 太宰府에서 大法師 覺樹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즉 『弘贊法華傳』은 宋人 蘇景이 覺樹의 의뢰에 응하여 高麗로부터 수백 권의 책을 가져왔을 때 없어질 것에 대비하여 俊源法師에게 한 부를 필사하게 하였다. 그 후 蘇景은 돌아가는 길에 壹岐島에서 해적을 만나 이 책 1~5권은 물속에 빠뜨려서 젖게 되고 여러 사람도 죽었으나 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부처님의 위력이었다는 기록을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1120년에 전해진 것은 당시의 高麗에서의 간행사실과 관련하여 볼 때 바로 敎藏의 일부와 1115년에 德緣에 의하여 간행된 책으로 추정하고 있다.

4.9 法華文句并記節要

이 책은 零本 1冊으로 본문의 내용은 卷第3에서 5까지 수록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26.4cm, 가로 16.1cm이며, 紙質은 광택이 나는 上品의 楮紙로 연결과 製冊의 방법은 包背裝으로 되어있다.

외형적인 조건과 13세기 전반의 판본들에서 나타나는 ‘成呂, 允卿’ 刻手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판본은 124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卷末 刊記35)



卷首

<그림 15> 『法華文句并記節要』卷6

이 책의 내용 구성은 『法華文句并記節要』란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法華文句』와 『法華文句記』를 節要한 것으로 『法華文句并記節要』 10권은 『妙法蓮華經文句』 20권과 『法華文句』 30권 중에서 品별로 거의 같은 분량으로 註釋을 달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전체를 10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 내에서 상하, 상중하로 구분한 것이 다를 뿐이다.

기록상으로는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이 책과 관련된 다른 章疏들을 본다면 ① 智者가 說한 文句 十卷, ② 湛然이 述한 文句科 四卷, ③ 湛然이 述한 文句記 十卷 등이 이미 11세기에 高麗에 전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간단히 추려서 볼 수 있도록 『法華文句并記節要』가 찬술된 것이다.

한편 그 모본이 되었던 두 자료 중 『法華文句記』는 天台 智顗가 지은 『法華三大部』 중의 『法華文句』의 주석서로 玄義, 釋懺 등과 더불어 天台宗의 기본 서적이었다. 『法華文句』가 『法華經』을 分科로 나눈 것에 비하여 이 책은 더욱 세분하여 774~775년경 智顗의 풀이 중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밝히고 吉藏, 法藏, 澄觀, 窺基의 설을 비판하면서 ‘今圓昔圓之同, 修性之三因佛性’ 등 天台宗祖의 뜻을

35) 남권희(1997), 45.

철저히 반영한 책이다.

이를 제목과 관련지어 보면 『妙法蓮華經文句』와 『法華文句記』를 함께 줄여서 10권의 책으로 節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문은 智顗가 說한 20권의 『妙法蓮華經文句』를 줄이고 주석은 湛然이 述한 30권 『法華文句記』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하여 만든 10권 3책 중의 제2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책의 저자와 간행시기를 장서인과 목서 기록으로 추정해 볼 때 이 책은 萬德山 白蓮寺의 승려에 의하여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124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되었다는 점과 『法華經』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다는 점, 그리고 萬德寺의 藏書印이 찍혀 있다는 것은 白蓮社가 高麗 後氣 武臣政權下에서 普賢道場의 개설과 함께 그 사상적 배경에서 北宋 知禮(960~1028)의 영향을 받아 念佛結社를 본뜨고 法華思想을 골격으로 민중 즉 피지배층의 불교로서 淨土信仰이 자리를 굳히는 때이므로 了世, 天因, 天頤, 無寄로 이어지는 『法華經』 중심사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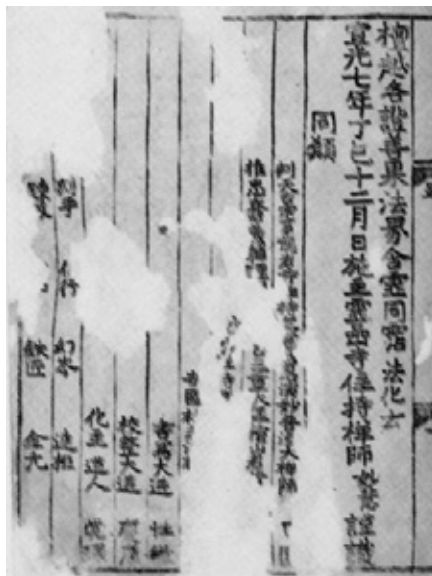
『法華文句并記要節』의 간행시기는 白蓮社의 了世가 주로 활동한 1216년부터 입적한 1245년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고 그가 남겼다³⁶⁾고 전해지는 『三大部節要』가 『摩訶止觀』 20권, 『法華玄義』 20권, 『法華文句』 20권 중에서 剛要만을 뽑아 만들어 유행시켰으니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으로 『法華文句記』 30권의 축약과의 관련에서 節要의 작업은 了世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행은 그를 이은 天因(1205~1248), 天頤(1206~?) 중의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편찬과 간행이 모두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10 法華三昧懺助宣講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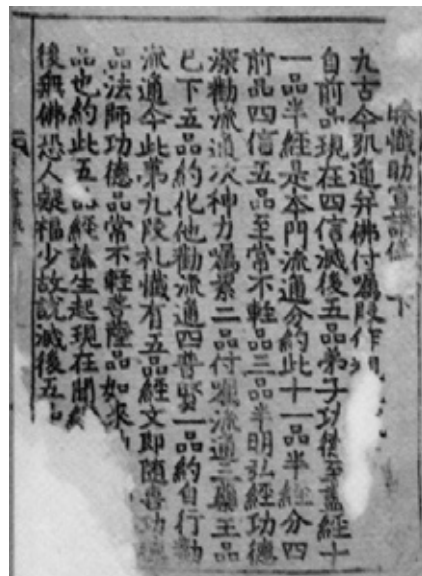
이 책은 隋代의 智顗가 저술한 『法華三昧懺儀』에 대한 章疏 중에서 流傳되고

36) 金佺, 『海東文獻總錄』 영인본 (서울: 學文閣, 1969), 307-308.

있는 것을 妙慧가 高麗 禡王 4年(1378)에 재물을 내어 『法華靈驗傳』과 더불어 간행하여 萬義寺에 안착시키고 오래 전해지도록 한 책이다. 忠肅公, 珍丘大禪師 混其, 三藏法師 義旋으로 이어져 온 宗旨를 靈岳寺住持禪師 妙慧가 널리 선양하고자 하며 또 여러 사람들의 안녕과 돌아가신 아버지 趙德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당시 判天台宗事 龍岩寺住持 忍演妙普濟大禪師이었으며 『法華靈驗傳』의 편자인 了圓이 간행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佛祖源流』를 통하여 보면 混其는 姓은 趙氏며 忠肅公 德裕의 伯父로서 趙仁規의 아들이 되고 趙仁規의 넷째 아들이 義旋이므로 이 글을 쓴 妙慧를 포함하여 이들은 모두 一門으로 天台宗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卷末³⁷⁾



卷首

<그림 16> 『法華三昧懺助宣講儀』 卷下

祇林寺 所藏本은 「初隨喜功德品」부터 시작하는 卷下의 零本 1책이며 개인 소장 자료는 卷上의 1책으로 내용은 「三昧懺緣記」부터 시작하여 「授記品」에 이르는 주석이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판식이나 보존의 상태 등이 거의 같다. 그러나

3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서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88), 128-129.

『釋化城喻品』에서 『釋分別功德品』에 이르는 10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卷中에 해당하는 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간행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을 보여주는 권말의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서,

卷末: 宣光七年(1377) 丁巳十二月 … 靈岳寺住持禪師 妙慧謹識同願
判天台宗事 龍岩寺住持 忍演妙普濟大禪師 了圓

書寫는 性徹, 校整은 慶廉, 刻手는 幻岑, 達桓과 1인, 鐵匠에는 金元 등이 참여하였다. 책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계선이 없고 본문은 11행 20자의 배열이며 版心の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4.11 妙法蓮華經三昧懺法

이 책은 祇林寺 所藏의 卷上 1帖이며 개인소장 자료 중 卷下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개인소장 자료에는 書名과 연결되어 ‘卷下 玄解’라는 기록이 부가되어 있다. 또 권말에는 “傳天台教觀 天幕沙門 釋 正亘集, 勸集 前深岬寺住持 慈惠大禪師 止西”라는 기록³⁸⁾이 있어서 祇林寺本의 같은 集의 표시와 함께 ‘施主 自明’의 표시와 서로 다르다.

책의 판식은 上下單邊에 계선이 없고 본문의 全匡은 30행 19자, 註雙行의 배열 체제이다. 판심제는 ‘懺 上/下卷’이며 그 아래 장차 표시 ‘卜’과 각수명 ‘信岡’(상권 35장)을 표시하고 있다.

상권의 권수에는 智者大師가 설한 ‘法華三昧儀’가 수록되어 있어서 비구, 비구니를 포함한 모든 대중이 대승경을 외우고 大乘行을 닦고 大乘義 등을 발하고자 하거나 석가모니불과 제불보살을 보고자 하고 일체의 번뇌와 죄업을 없애고자 한다면 먼저 21일 동안 넓은 곳에서 한마음으로 정진하고 이 경전에 의거하여 수행하여 法華三昧에 들어야 함을 설하고 있다.

38) 祇林寺 所藏의 卷上の 권말에는 저자표시인 ‘正亘’이 ‘山亘’으로 기록되어 있다.



卷首



卷末

<그림 17>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39)

즉 『法華三昧懺儀』는 반행반좌사매라 규정되는 법화삼매의 수행방법과 거기서 지향해야 할 실천적 경지를 제시한 지침으로 여기서 법화삼매란 嚴淨道場, 淨身, 三業供養, 請三寶, 讚歎三寶, 禮佛, 懺悔, 行道, 誦經, 坐禪의 10가지 법을 21일 동안 一心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88), 112-113.

5. 國外 所在 章疏 調査資料

『法華經』 및 天台四教儀 관련 章疏類에 대하여 중국의 上海圖書館, 浙江圖書館 소장 2종과 일본의 京都大學(2종), 龍谷大(2종), 金澤文庫(3종), 大谷大(1종), 佛教大學(1종)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法華文句記(上海圖書館)

이 책은 天台沙門 湛然에 의해 安吉州寶雲院에서 간행되었다. 折帖裝으로 제작된 목판본이며, 목재의 包匣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사항으로 1, 3, 4권 3책에 책의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10.9cm이며, 界線은 없다. 全匡은 세로 29.5cm, 가로 53.5cm이며, 匡高는 24.7cm이다. 본문은 1면에 6行 26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註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발폭은 2.5cm이고, 측수는 3cm 이내 27측으로 확인된다. 종이 두께는 0.8~0.9mm이다.

권수제는 ‘法華文句記’이며, 판수제와 판심제는 ‘妙樂 四’, 서근제는 ‘妙樂 一’과 ‘妙樂 四’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는 墨書와 朱書로 교정 표시가 되어 있다. 欄外에는 각수명이 나타나는데, 1권에는 ‘何澤, 翁遂, 劉仙, 傳上, 元, 陳, 傳方, 張’, 3권에는 ‘才, 成, 劉仙, 良, [遂], 傳方, 傳上’, 4권에는 ‘叡, 張成, 葉[云], 虞文, 傳岩’이 확인된다.

5.2 法華三昧懺儀(浙江圖書館)

이 책의 저자는 天台智顗이며 표지서명에는 ‘二儀同卷’이라 기입되어 있는데,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三昧懺儀’와 함께 소장되어 있다. 折帖裝으로 제작된 목판본이며, 지질은 白綿紙이다. 형태사항으로 1권 1책(28장)에 界線은 없으며, 본문의 行數는 일정하지 않고 17字로 배열되어 있다. 註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판심제는 ‘輔一’이며, 권말제는 ‘法華三昧行事運想補助儀’이다. 제1장에는 變相圖가 있으며, 본문에서 확인되는 印記는 ‘御記’이다. 마지막 장에는 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5.3 妙法蓮華經玄贊(京都大學)

이 책은 『법화현찬』, 『현찬』, 『법화경현찬』, 『법화경소』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며, 저자는 [窺]基이다. 京都大學에는 필사본과 목판본 2종이 소장되어 있다.

먼저 필사본 1권부터 살펴보면 이 책은 후대에 卷軸裝으로 改裝되었으며, 標帶의 길이는 21cm에 笹篠로 만들어졌다. 첨지는 金箔紙이다. 형태사항으로 1권에 해당하는 본 책의 匡高는 23.4cm이며, 紙高는 27.5cm이다. 界線은 罫寫되어 있으며, 註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색차 값은 L60.2, a+10.8, b+24.6이다.

본문에서 확인되는 印記로 [秋挹遺志]와 [金澤文庫]가 있으며, 본문은 朱筆과 墨筆로 수정되어 있다. 또한 내용의 첫 행은 ‘下三頌半正說三乘化分三初一頌…言增磤切菩薩浴尼連河坐菩提樹成’으로 시작되고 있다. 축의 서명 하단에는 ‘原卷尾 天平寶字 二年 戊戌 八月日 執筆淳智十六字 淳智南都 秋篠寺 僧云 紙皆有 金澤文庫之印’의 墨書記가 있다.

다음으로 목판본 『묘법연화경현찬』은 1~5권과 6~10권을 2帙의 包匣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형태사항으로 10권 5책에 4針眼 線裝本으로 제작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26.8cm, 가로 19.0cm이며, 변란은 四周雙邊에 界線은 없다. 본문은 10行 22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1.3cm, 가로 14.3cm이다. 발폭은 4.7cm이고, 측수는 3cm 이내 24측으로 확인된다. 종이 두께는 0.06mm이며, 색차 값은 L79.8~80.0, a+4.0~3.5, b+19.0~17.9이다.

본문 중 인쇄된 현토와 欄上에는 朱筆로 註가 기입되어 있다. 또한 四角墨印의 ‘[金手窟]’의 印記가 있으며, 권말에 ‘寬文四壬[甲]辰(1664)曆孟春 村上勘兵衛板行’의 간행기록이 있다.

5.4 天台四教儀(京都大學)

이 책은 1권 1책에 4針眼 線裝本으로 제작된 목판본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18.9cm, 가로 19.9cm이다. 본문에 界線은 없으며, 匡高는 25.4cm이다. 10行 15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註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耳註도 확인된다. 어미는 3葉花紋魚尾이다. 발폭은 3.4cm이고, 측수는 3cm 이내 26축이다. 종이 두께는 0.07~0.08mm이며, 색차 값은 L83.2, a+2.1, b+15.7이다.

이 책의 저자는 高麗沙門 諦觀(?~970)이며, 권말에는 ‘寬永三丙寅(1626)九月吉旦 於洛陽本國寺之內開板’의 간행기록으로 1626년 洛陽 本國寺에서 開板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5.5 法華經玄贊(龍谷大學)

『법화경현찬』은 窺基(632~682)가 지은 것으로, 『묘법연화경현찬』, 『법화경현찬』, 『현찬』이라고도 하는데, 法相宗의 유식학 입장에서 『법화경』을 해석한 것이다. 총 10권으로 『攝大乘論』 등의 설에 의거하고 世親의 『法華論』, 劉虬의 『注法華經』, 慧表的 『注無量義經』 등을 인용하였다.

이 책의 형태사항은 10권 10책에 5針眼 線裝本으로 제작된 목판본(日本)이며, 전체 크기는 세로 27.3cm, 가로 18.1cm이다. 변란은 四周雙邊에 半廓의 크기는 세로 21.6cm, 가로 14.3cm이며, 界線과 魚尾는 없다. 본문은 10行 22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지질은 왜저지이다. 발폭은 3.5cm이며, 측수는 3cm 이내 15축으로 확인된다.

본문에서 확인되는 印記는 ‘[寫字台之藏書]’가 있으며, 권말에 ‘寬文四壬[甲]辰(1664)曆孟春 村上勘兵衛 藤田庄右衛門 板行’의 간기가 나타나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법화경』이 일어난 원인을 서술하고, 이어 경의 종지를 천명함과 더불어 각 품의 이름을 해석함으로써 각 품을 없애거나 세우는 뜻과 품의 순서를 드러낸 뒤에 경의 본문을 해석하였다. 티베트어본을 한역한 것의 제목은

『妙法蓮華註』이며 티베트대장경 안에 수록되어 있다. 주석서로는 『法華玄贊義決』 1권, 『法華玄贊攝釋』 4권, 『法華玄贊決擇記』 8권 등이 있다.

5.6 科註妙法蓮花華經(龍谷大學)

이 책은 折帖을 4針眼 線裝으로 改裝하였으며, 7권 7책의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0cm, 가로 19.0cm에 변란은 上下單邊이며, 界線은 없다. 본문의 大字는 5行 16字, 小字는 10行 22字로 배열되어 있고, 註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耳註도 확인된다.

각 책은 상,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은 科圖, 하권은 經과 註釋文이 수록되어 있다.

5.7 法花文句輔正記(金澤文庫)

이 책은 권3과 권8에 저자가 기입되어 있는데, 권3에는 ‘吳興沙門 道暹 述’, 권8에는 ‘雪水永定寺 沙門 道暹 述’로 나타난다. 형태사항으로는 9권 9책에 粘葉裝으로 제작된 필사본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0.6cm, 가로 14.7cm이다. 界線은 押界에 본문은 7~8行 18字로 배열되어 있다.

권5와 권6의 권말에는 간사기록이 나타나 있다. 권5에는 ‘正慶二年(1333) 己酉 五月十八日 午時令書寫畢僧大夫圓[]’, 권6에는 ‘筆師澤圓寫’가 쓰여져 있다.

5.8 法華經文句科(金澤文庫)

『법화경문구과』는 당나라 때 荊溪 湛然(711~782)이 지은 것으로 『법화문구』에 대한 科目이다.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 『海東有本見行錄』에 ‘文句科4卷 已上 湛然 述’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1권 1책(10장)에 折帖으로 제작된 목판본(宋板)이며, 책의 전체 크기

는 세로 29.3cm, 가로 11.0cm이다. 전광은 54.5cm에 匡高는 25.4cm이며, 본문은 6行에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蟲損으로 인한 褙接과 표지가 改裝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은 ‘法華經文句科 第一’이며, 권수제는 ‘法華經文句科 第一’의 아래에 ‘橫’의 천자문 함호가 있다. 판수제는 ‘文句一’이며 아래에 각수명이 확인되며, 지질은 竹紙이다. 본문에서 확인되는 각수는 ‘付正, 奕, 宥’이다.

5.9 重編天台諸文類集(金澤文庫)

이 책의 저자는 四明沙門 釋 如吉이며, 廣智法師에게 배워 그 요지를 터득하였다. 三部의 글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類集을 이루고 『중편천태제문류집』을 편찬하였다. 『金鐸』에 주를 달았는데 말이 간결하고 뜻이 올바랐고, 배우는 자들이 그것을 중지로 삼았다.

형태사항은 권1, 2, 3, 5, 6과 권9, 10이 合綴된 7책에 蝴蝶裝으로 제작된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28.1cm, 가로 19.5cm이다. 변란은 上下單邊과 左右雙邊이며, 半廓의 크기는 세로 16.1cm, 가로 10.8cm이다. 본문에 界線이 있으며, 8行 17~18字로 배열되어 있고 小字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魚尾는 없으며, 지질은 藁精紙이다. 권10의 권말에는 ‘丹丘, 王庸’ 등의 각수가 확인된다.

5.10 法華義疏(大谷大學)

이 책의 저자는 吉藏이며, 권말에는 ‘元祿十二己卯(1699)秋七月吉祥日’의 간사기록이 확인된다. 간사지는 ‘洛陽書肆 并河治郎兵衛 山脇六郎兵衛 識田八郎兵衛’이다.

형태사항으로 1~2권 1책의 5針眼 線裝本으로 제작된 목판본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7.3cm, 가로 19.2cm이다. 변란은 四周單邊이며, 半廓의 크기는 세로 20.8cm, 가로 19.2cm이다. 본문에 界線은 없으며, 10行 20字로 배열되어 있다. 어미는 上下 內向3葉花紋魚尾이며, 발폭은 6.3cm, 축수는 3cm 이내에 19축으로 확인된다. 종이

두께는 0.02~0.05mm이다.

5.11 科註妙法蓮華經(佛教大學)

이 책은 전체 8권 5책 중 2권 1책에 해당하며, 5針眼 線裝本으로 제작된 목판본이다. 권차는 권1(上, 下), 권2(上, 下), 권3~8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7.1cm, 가로 18.6cm이다. 변란은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으며, 半廓의 크기는 세로 22.4cm, 가로 16.1cm이다. 본문은 8行 17~19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小字는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大黑口에 어미는 3葉花紋黑魚尾이다.

저자는 姚秦三藏法師 鳩摩羅什이며, 권말에는 ‘延寶第四丙辰(1676) 天孟秋 上浣寺 町通二條下町中村五丘衛開板’의 간행기록이 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天台宗 章疏 문헌 중에서 『天台四教儀』와 『妙法蓮華經』과 관련된 주석서를 실물조사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다루어보았다. 중국의 천태종이 이론 중심의 학파에서 實踐門이 강조되는 종파로서 성립되고 고려에서는 의천에 의하여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는 章疏의 목록 편찬과 이의 간행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장경에 이은 불교문화와 사상의 총합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천태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의경전으로서 『법화경』의 章疏 중 현존하는 판본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소장된 것을 대상으로 서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괄하여 보았다.

첫째, 의천에 의하여 기반이 형성된 천태종은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문헌들이 간행되어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유포되었으나 이후 침체기를 거쳐 무신집권기인 13세기 전반 了世로 인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둘째, 천태종의 기본 저술로서 고려의 천태학을 중국에 전파한 諦觀의 『天台四

教儀』는 1089년 重刻版, 1315년 祈福都監版이 있고, 그 주석서인 『天台四教儀集解』는 조선 世祖年間に 간행된 刊經都監版(1464년)과 乙亥字版, 을해자판의 번각본 등이 있으며 각 판본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였다.

셋째, 『法華經』과 관련된 주석서로 『天台三大部補注』는 1245년 分司大藏都監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대장경이 간행되던 같은 시기에 판각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전체의 내용은 천태삼대부인 『法華文句』, 『法華玄義』, 『摩訶止觀』에 대한 從義의 찬술로서 전체는 14권 중 현존본은 권1-5의 1책이다. 책의 서지적 특징으로 본문 중에서 중국 송대의 피휘인 ‘敬’과 고려 왕의 피휘인 ‘武, 建’ 등에서 결획이 나타나며 새긴 각수도 재조대장경의 각수들과 일치한다.

넷째, 그 밖의 『법화경』 章疏와 주석서로 13세기 간행의 『弘贊法華傳』과 『法華文句并記節要』와 14세기 간행의 『法華三昧懺助宣講義』와 『妙法蓮華經三昧懺法』과 『科注妙法蓮華經』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고려 敎藏의 重修本으로 조선의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妙法蓮華經贊述』(저본간기 1095년),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저본간기 1099년)이 있고 그 외의 간경도감 중수본으로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와 고려 廣敎院版 重修本人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등이 있다.

여섯째, 국외 소장의 章疏로는 중국 소재의 목판본 『法華文句記』, 『法華三昧懺儀』가 있고 일본 소재의 『妙法蓮華經玄贊』(京都大), 『法華經玄贊』, 『科注妙法蓮華經』(이상 龍谷大), 『法華文句輔正記』, 『法華經文句科』(이상 金澤文庫), 『法華義疏』(大谷大), 『科注妙法蓮華經』(佛教大學) 등이 있다.

이러한 『법화경』과 천태사교의 관련 章疏와 문헌들은 의천의 敎藏에 대하여 그 구성과 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문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천태종 관련은 물론 다른 종파의 문헌과의 체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高翊晉.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서울: 民族社, 1987.
- 關口眞大 著, 慧命 譯. 『천태지관의 연구』. 서울: 민족사, 2007.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古代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서울: 씨아이알, 2010.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서울: 일조각, 2006.
- 大蓮 李永子博士 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譯.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서울: 佛地社, 1997.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 普照思想研究院. “大覺國師義天의 佛教思想과 歷史的 位置.” 『普照思想』 제11집. 서울: 佛日出版社, 1998.
- 송광사 정보박물관.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서울: 태학사, 2004.
- 윤기엽. 『고려 후기의 불교; 사원의 불교사적 고찰』. 서울: 일조각, 2012.
- 이병욱. 『천태사상』. 과주: 태학사, 2005.
- 이영자. 『천태불교학』. 서울: 불지사, 2001.
- 李永子.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서울: 民族社, 1988.
- 李載昌. 『韓國佛教史의 諸問題』. 서울: 우리출판사, 1993.
- 田村芳朗・新田雅章 著, 영산법화사출판부 譯. 『천태대사; 그 생애와 사상』. 서울: 영산법화사 출판부, 1997.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經書院, 1982.
-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竺沙雅章.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0.
-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許興植. 『韓國中世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4.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1.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刊行委員會 역. 『曉城趙明基先生遺文稿 韓國佛教史學
論集』. 서울: 民族社, 1989.

[논문]

柴崎照和. “義天 『圓宗文類』의 研究; 四明如吉と高麗義天.” 『印度學佛敎學研究』 第44卷 第2号(1996).

이기운. “새로 발견된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을 통해 본 고려후기 법화신행.” 『한국
선학』 제30호(2011). 409-434.

이병욱. “고려시대 개경에서 활동한 천태사상가; 대각국사 의천과 그의 제자를
중심으로.” 『국제고려학회논문지』 제8호(2006). 67-93.

黃仁奎. “高麗後期 敎宗僧의 中國遊歷과 佛敎界의 動向.” 『불교연구』 제27호
(2007). 89-119.

